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3호 2010년 5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hq@gmail.com

오연천 교수 최고 득표 제25대 총장선거 투표서 1위 차지 교과부장관 제청뒤 대통령이 임명

모교 제25대 총장 선거에서 오연천(59·사진) 행정대학원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3일 교수 및 교직원 2천504명이 참여한 이번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

서 오 교수는 880.3표(52.3%)를 얻어 1위에 올랐다.<도표 참조>

2위는 634.6표(37.6%)를 얻은 오세정(57) 폴리·천문학과 교수, 3위는 163.8표(9.7%)를 득표한 성낙인(59)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임장사 이상의 재직교수 1천747명 가운데 1천592명(투표율 91.1%), 교직원 1천19명 중 920명(투표율 90.2%)이 참여했다. 유효투표수는

교수가 1인당 1표, 교직원이 0.1표로 계산됐다.

모교는 이 중 1·2위를 차지한 오연천 교수와 오세정 교수를 제25대 총장 후보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여기서 교과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제25대 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모교는 지난 1991년 총장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대통령이 2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오연천 교수가 차기 모교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한 실정이다.

후보 대상자	득표수			득표율	비고
	교원	직원	계		
오연천	837	43.3	880.3	52.3%	직원은 1인당 0.1표로 계산. 과반수 843표
오세정	596	38.6	634.6	37.6%	
성낙인	154	9.8	163.8	9.7%	
무효	5	0.3	5.3	0.3%	



지난 5월3일 치러진 제25대 총장후보 투표에서 결과를 집계중이다

신임 총장은 오는 7월2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해, 현재 추진중인 모교의 법인화를 책임지게 된다.

오연천 교수는 “국립대인 서울대에 시장지향적·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인화 전환을 계기로 기초학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저를 총장후보 중 한 사람으로 선임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모든 역량을 다해 서울대가 국가 발전에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 교수는 경기도(66회)를 거쳐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행정

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무부·총무처를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다 1983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 교수는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대’라는 비전 아래 ‘STAR(Superior Teaching, Advanced Research) 프로젝트 10’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2000억원을 들여 기초 연구와 한국학 연구, 연구 기자재 확충 등을 강조한 S.A.V(SNU Academic Value-creation)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후보 선거 중 모교 국내 박사학위의 국외 진출을 돕는 ‘SNU 영스타(Young Star)’ 제도 신설과 일반 회계 연간 20% 증액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서울대 홍보부>

제19차 평의원 회의에 많은 참여 6월11일부터 3일간 시카고서

미주 동창회 행사 가운데 최대 일정인 제19차 평의원회의가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시카고 Lincolnshire Marriott Resort에서 열린다.

이번 평의원회의는 ▶11일 등록 및 접수, ▶12일 환영 강사 강연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초청 강사는 Claremont McKenna College 석좌교수 이채진 동문(정치학과 55)이다.<2면 참조>

▶12일은 평의원 회의 외에 평의원·총장·동창회장 환영 디너가 계획돼 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이장무 총장께서 참석하실 계획이다. 또한 임광수 총동창회장, 손일근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명대현 관악회 이사,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어 ▶13일에는 평의원 환영 골프대회를 개최 시상식 및 디너 파티를 갖게 된다.

이번 평의원 회의의 주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중요한 것은 ▶Website영구보전 ▶Nominating Committee

위원 구성 ▶차후 미주 동창회장 선출 개선안 ▶발전기금 Bylaw 개정안 ▶미주·서울 동창회 발전기금 위원회 간 관계 및 동창회 역할 ▶Brain Network 구성안 등이다. Website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운용되고 있으나 전 미주 동창회가 통합적으로 운용돼 오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이다.

그 결과 임원회에서 7인으로 구성하되 4명은 LA·시카고·뉴욕·워싱턴 등 4개 도시의 전직 회장단, 3명은 평의원 중에서 선정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이 역시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차후 미주 동창회장 선출 개선안은 현재 4개 도시 위주로 선출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건이다. 발전

기금 Bylaw는 위원장 오인석 회장이 회칙 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시카고 O'Hare공항에서 Lincolnshire Marriott Resort까지는 택시로 약 30분 걸리며 요금은 35~42달러 정도다. 택시로는 문 택시(847-812-9922), 타임 택시(847-375-8999), 시카고 공항택시(847-630-4082)를 비롯해 여러 편이 있다.

사진은 지난 해 제18차 시카고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동문들의 모습이다

특집 · 기획

<천안함 침몰>국가안보회의의 재판해이/이스라엘식 용장도 필요 3~5면
<5.16 49돌>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공과/한일관계 전개와 박정희 6면

PRSR STD
NON_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종합

시장취임·평의회 강연·개발 기술 미해군 실용화



Joseph Cho Ph.D 조재길 동문

세리토스 첫 한인시장 취임

지난 2007년 한인으로는 처음 LA 세리토스 시의원에 당선돼 2009년 부시장으로 재임해 온 동문 조재길 박사(사대 61)가 지난 3월10일 LA의 세리토스 시장에 취임했다.

조 동문은 1974년 도미, CA주립대(노스릿지 캠퍼스) 대학원에서 수학 후 LA카운티 공무원으로 2년 6개월만에 매니저보가 됐지만,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사직했다.

부동산업으로 1980년 KBS가 '세계속의 한국인 1호'로 선정할만큼 성공, 1981년 코리안 스트리트저널을 창간해 남가주 언론동우회장, 미주동포전국협회(NAKA)부회장등을 역임했다. 90년대에는 KS인쇄회사를 경영하면서 라디오코리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북한은 변화

고 있는가'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통일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 등의 저서를 냈다. 2006년 중국 연변대학에서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의 근현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발간했다.

2003년 60세에 한인도 미국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주류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의원에 도전, 두 차례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있는 세리토스시는 '올 아메리칸 시티 어워드' 대상 수상에 미진국 3위의 명문 워트니고교를 비롯한 최고수준의 교육 문화구로 한인이 선호, 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인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조 동문이 처음 2007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현재 교육위원, 대학평의원 등 선출직에 한인이 당선됐다. 조 동문은 그동안 휴버트험프리 민주당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아시아-태평양계 시의원 연합(APAMO) 이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에는 한미연합회(KAC-OC)로부터 사회봉사상, 아시아인 마약남용방지기구(AADAP)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9년 한인 차세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한인정치력신장위원회를 결성해 유권자등록과 차세대정치지도자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재길 동문(가운데)이 취임식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했다. 왼쪽부터 차남 준석(LA검찰청 검사), 부인 권숙혜,며느리 미셀(치과의사),장남 광석(변호사). 딸 지아(변호사)와 사위 김인철(변호사)은 취임식에 참석치 못했다.

하지 못했는데 조 동문이 처음 2007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현재 교육위원, 대학평의원 등 선출직에 한인이 당선됐다.

조 동문은 그동안 휴버트험프리 민주당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아시아-태평양계 시의원 연합(APAMO) 이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에는 한미연합회(KAC-OC)로부터 사회봉사상, 아시아인 마약남용방지기구(AADAP)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9년 한인 차세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한인정치력신장위원회를 결성해 유권자등록과 차세대정치지도자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laremont McKenna College 이체진 석좌교수 강연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6월12일 시카고 Marriott Lincolnshire Resort 에서 열린 제19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의 전야제 초청강사 강연 및 토론회 강사는 Claremont McKenna College 의 국제정치학 석좌교수인 이체진 동문(정치학과 55-59 사진)이다.

이날 이 교수는 '남북관계와 미국정책'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이어서 지정된 토론자의 토론과 동문들 참여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필자와 모교 재학시절부터 친구로 미국 학계 동료인 이 교수는 정치학과 동문 중에서는 물론 재미 한국계 정치학자 중 가장 학문적 업적이 많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UCLA 에서 정치학 석사(1962)와 박사(1966) 학위를 취득했으며 학문적 업적과 행정 경험을 겸비한 동문이다.

그의 학문적 업적부터 요약하면 영문 저서 23권과 학술 논문을 100여편을 출판했다.

저서 중 Johns Hopkins 대학 출판부간행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2006)와 Japan Faces China(1976), Stanford 대학 출판부 간행 Zhou Enlai: The Early Years(1996)는 미국의 저명한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을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저서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 교수가 미국과 한반도 관계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관계, 중국 역사와 정치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이 동문은 한·영·일·중 4개국어로 문헌활용은 물론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정치학자 중 한 명이다. 이 동문의 행정경험 중 특기



할 만한 것으로 California State University(Long Beach) 사회과학대 학장(1986-1989), University of Kansas 문리과대 부학장(1982-1986), Claremont McKenna College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소장(1989-2009)을 들 수 있다.

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금 한반도는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6.25전쟁 이후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미국 정책의 구조적인 특수성을 인식하고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현재와 장래를 이론적인 시각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천안함 사건,북핵문제,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을 위시한 남북관계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고자 한다.'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은 "서울대의 자랑스런 동문인 이체진 교수가 이처럼 강사로 초빙된 것은 모두 기뻐해야 할 일이니 가능한 한 많은 평의원과 가족들이 참석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철(법학 55-59)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김찬규 동문(오른쪽,원 내)이 덴주 박사와 함께 미 해군 항공모함 갑판에서 한 장면 '질척'했다

김찬규 동문이 개발한 기술

미 해군에서 채택,실용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재홍(NY) 백순(OC)

오강남(BC)오기창(CH)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

(LA)임승배(SF)장석정(CH)정홍택

(PA)한창섭(NY)

편집위원:조민규(문)조봉원(법)

조대현(공)구정희(의)이승자(사)

정호(공)홍혜혜(사)

고국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해군력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김찬규 동문(공대 54,미해군연구처 공학박사·사진)이 창안한 기술이 미 해군

전력증강에 실용화되고 있다.

김 동문이 개발한 기술은 'PASSION'으로 불리는 전자 장비로 무선탐지로 전함이나 전투기 뿐 아니라 전함 내부의 인원및 장비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이다.

미 해군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최신 전자 기술에 투자해오던 중 김 동문의 이같은 기술을 실용화한 것이다.

김 동문에 따르면 이는 김 동문의 지도하에 미 해군 연구원 매리 덴주 박사가 개발,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기 통합사업부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PASSION 은 미 해군 연구자문 위원회에서 추천한 항공모함과 다른 전함들의 인력 감소와 더불어 전투로 인한 파괴손실 파악과 보수, 인원및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쓰이고 있다.

미 해군 연구자문위는 "전함 등 함정내 인원을 신속 정확하게 원거리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더 증강돼야 한다. 어떤 전투로 인한 파괴손실 상에서도 인원의 위치 파악은 최우선 임

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병사의 인식표나 무선탐지로 용이하게 개개의 인원파악 및 총인원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 해군 기술처는 지난 3년간 시험과 시동을 마쳐 기능이 증명돼 구매 배치할 예정이다.

김 동문은 "조지 워싱턴 대 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모의시험을 거쳐 이번 항공모함 조지 H. W.부시함(77호)에서 최종 시험을 마친 이 PASSION 장비는 전 니미츠 급 항공모함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PASSION 장비 프로젝트는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기 통합사업부와 대서양 태평양 해군 전술 사령부에서 관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호의 차례

3. 국가 안보회의부터 재편해야 한다
4. 때론 이스라엘식 응정도 필요하다
5. 집단적 흥분·페쓰기·저항·썰렁 문제
6. 5.16군사혁명 49주년

7. 미 정부의 금융 파생상품시장 규제
8. 아이티 의료선교<상>
9. 지구 온난화<상>
10. '반포지호' 일깨워준 새
11. 대홍수 때 밀려온 게 아닐까?
12. 노화와 수명은 불가분의 관계
13. 장수가 반드시 축복받는 건 아니다

14. 글쓰기 & 예일대 계절학기 소감
15. 세계 명화 지상감상 <이중섭>
- 16-18. 지부 뉴스 & 동문 동점
19. 고국동문 동점
- 20-22. 동창회비·후원금 납부현황
- 23-29.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특 집

천안함 침몰 사건



송중환(문리 68졸)

연우포럼에서 '남북시론'으로 이름난 송중환 동문(명지대 초빙교수)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회의 체계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긴급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중 동문들의 '천안함 침몰과 우리의 대응방향 및 청와대 안보·외교·통일업무 조정 체계개선 방안' 등을 요약해 특집으로 전제한다.

문제의 제기

천안함 침몰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해군 군함과 장병이 공격을 받아 희생된 국가안보차원의 중대 사대다.

지난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패전후 김정일의 해군 587 연합부대 시찰과 1월후 거듭된 위협적 언동과 연관된다.

천안함 침몰과 그 이후 노정된 문제점을 비판하기보다는 시정·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다.

천안함 침몰에 노정된 문제점은 첫째 군 지휘체계의 기강 해이로 상황전파 및 위기 발령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KNIDS(해군전술 지휘통제체계) 화면에서 천안함 위치신호가 사라졌는데도 화면시설이 있는 해군 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군사지휘본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등의 근무자가 취한 조치가 불분명하다.

천안함 포술장이 핸드폰으로 상황 발생 6분후 해군 2함대 사령부에 한 침몰상황 보고가 국방부·청와대·국정원 등 7~8개 수신처에 Fax등으로 자동전파됐는지 여부 및 해당 부처가 취한 조치도 분명치 않다. 군 지휘상 합참의장은 사고발생 49분후, 국방장관은 52분후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보고받아 사실상 지휘업무를 볼수행했다.

* 천안함 침몰(밤 9시22분), 2함대 사령부 상황보고(9시28분), 해군작전사령부 최초보고(9시31분), 합참에 긴급상황 전파(9시45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에 전파(9시51분) 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10시)등 급박한 상황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모르는 상황에서 전개, 합

참의장 첫 보고가 10시 11분, 국방장관 10시 14분이다. 사건 원인과 시간대, TOD 녹화내용 공개에 대한 수차례 수정발표는 군 불신만 초래했다.

둘째, 육군위주 작전지휘체계 편중으로 해상작전을 육군이 지휘, 합참의장(육군대장)·작전본부장(육군중장)·작전부장(육군 소장)등이 브리핑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도 해군참모총장을 수행치 않고 해상작전에 밝지 않은 국방장관만 참석했다.

셋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실 작동이다. 안보·외교·통일분야 시스템 작동보다 대통령 지시와 지침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정됐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가운데 어떤 회의체가 중심인지 불분명하고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 회의체를 운영·처리하는 인상이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의 역할도 부재했다.

넷째, 국방예산 특히 방위력

이 시급하다. 즉 핵·미사일·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응징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등 고강도 전략 수렵과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이 절실하다. 잠수함·수상함등에 장거리 순항 타격 유도탄 탑재도 요구된다. 이지스함·반잠수함·잠수함등 비대칭전력에 의한 침투에 대비하는 해군력과 공군력도 개발해야 한다. 전략정보수집 군사위성, 공중정보 및 통제체계를 적제한 공중조기경보기(AWACS),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UAV) 등 첨단 감시수단의 연차적 도입이 필요하다. 방위력 개선비 9조 1천 30억원 중 해군력 증강을 위한 투자비를 감소는 큰 문제다.

4월15일 함미 인양후 어뢰나 기뢰에 의한 폭발이 원인임이 밝혀질 때까지 내부폭발, 압초충돌, 금속피로 선체파괴등 내부요인설이 여론을 주도했다.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북한개입 가능성을 부정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유도된 것

미서관 임명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전제로 장비 현대화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무기체계 개편 및 우선순위 조정의 국방예산 대폭 증액, 첨단 무기화·병력 감축 요지의 2020 국방개혁도 재검토돼야 한다.

전작전 환수 연기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우방국과 정보협력 실태 및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관련성이 판명될 경우 비군사적·군사적 응징책도 심도 있게 강구돼야 한다. 이는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단호한 응징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안보·외교·통일업무 개선

청와대의 현 안보·외교·통일업무 조정 체계는 지난 2008년 2월 법률 제8874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른 청와대 조직도표의 특징 중 좌파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양대 축이었던 국가안

보회의가 담당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은 과거 통일부장관이 다른 부처 업무를 조정한 것처럼 정부조직상 맞지 않고 국방·외교·통일업무를 총괄 조정자 내지 Control Tower로 부적절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처 고유 업무만 해도 물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정을 불고려했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위기 상황보고와 대책수립 기능을 함께 맡는 것은 보고의 시의성을 높일 가능성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예: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지연 처리).

개선방안으로 안보·외교·통일업무 조정으로 위기 수준에 따라 단계별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정화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 정책 조정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대통령·부통령·국무장관·재무장관·국방장관·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되는 미국 NSC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해 주요 각료들과 협의하는 포럼임과 동시에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차관급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대신 장관급 안보·외교·통일수석비서관을 임명,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간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것이다.

중요도가 낮은 정책 협의·조정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안보·외교·통일수석 비서관이 주재하고 외교통상부장관 주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폐지하며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 장관급 안보·외교·통일수석 비서관의 기능 상향 및 인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보·외교·통일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발탁할 것이나 전 정부의 NSC 복원은 고려하지 않을 일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정책조정을 추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하는 장관급 안보·외교·통일수석비서관 주재 실무조정회의를 두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 국가정보원 1급 관리관이 파견돼 국가 위기상황센터장을 맡는 내규를 작성하고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서울대 외교학과 졸(68), 미 Tufts대 플레처 국제법·외교대학원졸(84), 청와대 외무부·통일원 담당관, 주 UN대표부 정무공사 겸 UN총회 대표,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 위원. 현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 교수. 저서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를 비롯 다수



개선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 2012년 4월 전작전 환수준비에 태부족한 예산도 문제다(도표 참조). 새 정부 재정증가율은 매년 7.5~10%나 국방재정 증가분은 2년 앞둔 전작전 환수에 대비하기는 커녕 자연적 증가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 경상운영비(인건비·급식비·피복비)와 전력유지비(부대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 복지 등) 20조4천597억원으로 전년대비 5천418억원, 2.7% 증액과 무기획득 및 연구개발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4천883억원, 5.7% 증액에 불과하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기습공격에 대비한 전력 증강

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정책십 해이의 연속으로 평가되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의 국가안보 및 군 경시풍조가 초래한 사건으로 전동하고 일부 학생들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시위한 바도 있다.

고려해야 할 향후 대책

먼저 위기발령 지연에 대한 원인의 철저 조사로 군 지휘체계 및 기강을 확립하고 작전 지휘체계 주요 보직의 육·해·공군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산하 육군 소장이 맡고 있는 합참 작전부장에 해·공군 작전부장을 별도 임명하고 위기발생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역무 분담과 위기관리 개선을 위한 청와대 안보·외교·통일 업무의 조정체계 개선으로 안보 컨트롤 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

장관급 외교·안보·통일 수석

비서관회의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폐지돼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이 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동 회의 산하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로 대체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 업무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

현행 안보·외교·통일 업무 조정 체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능을 자문으로 국한한 것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포괄적 안보문제 대처에 부족하며, 천안함 침몰 관련건을 처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개최 등 실제 상황과도 불일치한다.

현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하면, 국가안보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 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 조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의장인 외교안보정책조정

구분	액수	전년대비
2007년(노무현 정부 마지막해)	24조4,972억원	
2008년(노무현 정부 확정)	26조6,490억원	7.4%증액
2009년(이명박 정부 1년차)	28조5,326억원	7.1%증액
2010년(이명박 정부 2년차)	29조5,627억원	3.6%증액

특 집

천안함 침몰사건



이동복(문리 57)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침몰한 ‘천안함’ 침몰에 대해 초기 “증거없이(북한 개입)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황에 의하면 천안함 침몰은 북한소행임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제기됐고 충분한 검증이 진행돼 왔다. 가능성 가운데 개연성이 입증된 원인은 북한의 반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폭파다.

혹자는 북한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에 대해 반론을 든다. 이 반론 제기자들은 대부분 친북·좌경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도발을 감행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1950년 6월25일 새벽 선전포고 없는 기습 남침으로 비극적 6.25전쟁을 도발했다. 1953년 7월27일 휴전 뒤에도 수백회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 전역에 20곳 이상의 남침용 땅굴을 굴착, 4곳이 발견됐다.

대표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무장공비 테러 및 연평해전

▶1968년 1월21일 북한군 124군 부대원 31명이 서울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 격전 끝에 28명 사상 1명 생포 ▶1968년 1월23일 원산 앞 공해상에서 승무원 82명의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1968년 10월30일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삼척지구 침투, 113명 사상, 7명 생포. ▶1969년 4월15일 북한 공군 Mig17이 동해상에서 비행 중이던 미 정찰기 EC-121을 격추, 승무원 31명 전원사망 ▶1976년 8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을 습격, 도끼로 2명의 미군장교 타살, 한-미군 9명 중·경상 ▶1983년 10월9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폭파시켜 전두환 대통령 수행 정 부요인 등 17명 폭살, 17명 중·경상 ▶1987년 11월28일 인도양 상공에서 KAL 858기 공중 폭파, 승객 95명 및 승무원 20명 전원 몰살 ▶1996년 9월18일 300톤급 북한 잠수함이 삼척지역에 침투, 13명이 상륙했다가 전원 사상, 잠수함 내에서 11명이 자살체로 발견, 1명 생포 ▶1998년 6월22일 동해안 강릉지역에 침투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 안에서 자폭 공작원 9명의 사체 발견. 또 근래 연평해전은 ▶1차전

“때론 이스라엘식 응징도 필요하다”

북한 잠수함 사궤기지 면도날 공격해야

=1999년 6월15일 북한군 어뢰정 1척 격침·경비함 4척 대파 ▶2차전=2002년 6월29일 한국 고속정 침수리 357호 침몰 ▶3차전=2009년 11월10일 북한 경비정 1척 반파후 도주.

이같은 북한의 무력도발 사례의 특징중 하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25가 대표적으로 시종일관 ‘6.25 북침’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6.25 문제는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그의 아우 김영주와 회담을 가졌을 때 화제가 됐다. 이후락이 남북간 신뢰 문제와 결부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후락은 “만약 통일 문제를 포함해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개선·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문제”라면서 “그런데 6.25와 같은 민족적 비극에 관해 전쟁을 일으킨 쪽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이 일으킨 것이라고 사실을 날조·왜곡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남북간에

게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드리시오. 그 무슨 사건이더라, 청와대 사건이라든가, 그것이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좌경맹동분자들이 한 것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며 우리도 몰랐고 그때 보위부 참모장, 정찰국장 다 철직(撤職)하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다”고 자진해 1968년 1월 124군 부대의 청와대 기습기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 김일성의 이 같은 말들은 이후락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한 것이었을 뿐 공식입장에는 그 뒤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지금도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1968년의 1.21 사태는 남조선의 애국세력이 일으킨 무장봉기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밖에 1968년 10월 대규모 무장공비의 동해안 상륙사건

1월30일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군사정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4월17일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으며 5월27일에는 “서해 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의 남측 5개섬(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주변수역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협박한다. 이렇게 되면 서해상에서 기존 NLL을 사수하려는 한국 해군과 이를 인정치 않는 북한 해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필연이었다.

끊임없는 도발과 준비

작년 11월10일 북한 해군은 서해에서 또다시 NLL을 침범 도발했다가 한국 해군의 우세



1996년 9월 삼척을 지나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채 발견된 북한 상어급 잠수함.구경 533mm 어뢰 4기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최장 20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물 위 함속거리는 2700km 이상이다.

신뢰가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김일성을 압박했다.

이같은 압박에 견디기 힘들었던지 1972년 5월4일 평양에서 이후락을 만난 김일성은 “남쪽에서(북으로부터의)남침을 걱정하면서 6.25와 같은 동란을 염려하는 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락은 김일성의 이 말을 6.25를 일으켰던 사람의 입장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말로 이해했고 해석했던 김영주도 그렇게 이해했는지 이날 김일성의 말이 있긴 전 “6.25는 북침이었다”고 강변하던 그가 이후락과 대화에서는 “6.25는 남쪽에서 송악산이요, 까치봉이요, 우리를 건드리니까 맞받아 친 것”이라는 정도로 말을 누그러뜨렸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이후락에

은 물론 아웅산 묘소폭파, KAL 여객기 폭파, 잠수함 잠수정 침투 및 비무장지대 땅굴 등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날조한 자작극으로 밀어붙이는 적반하장의 작태다.

비록 아직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 공격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단정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남 공세를 시작했을 때부터 예고하고 있었다.

북한은 작년 1월17일 “남조선이 대결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서해 우리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서해 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어 작년

한 화력 앞에서 다시 일패도지(一敗塗地)한 바 있다.

작년 내내 백령도와 연평도 대안(對岸) 북한지역에서 지하 포대와 미사일 발사대가 증축되고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훈련이 빈번해지며 탄약비축을 늘리는 징후가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3월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전군 전투동원태세”로 대응했으며 3월8~29일의 한-미 독수리 훈련에서는 한-미 해군을 싸잡아 “북침항로를 잡은 전투함선”이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멸적의 의지로 복수의 불벼락을 들춰워 바다에 수장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없이 종료됐으나 한-미 독수리 훈련 종료

사흘 앞둔 시점에서 끝내 ‘천안함’ 침몰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은 이 동안에도 대남 도발을 여전히 계속했다.

한국 국방부가 15개 언론사와 6.25전쟁 60주년 일환으로 DMZ 지역을 공개하고 생태·환경 등 취재 편의제공 양해각서(MOU) 체결을 트집잡아 “만약 미국과 남조선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과 함께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물론 결과는 확실한 물증에 의해 입증이 필요하다. 물증은 앞으로 바다 밑에 있는 파편들이 수거되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사가 그렇듯 선택대책에 상·중·하의 방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합제인양을 통해 북한의 소행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면, 필자 생각으로는 아마도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 공동조사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동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남북간 대화를 통해 그에 따른 처벌과 보상 및 재발방지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유엔을 통한 제재의 외교적 수습을 모색할 것 같다.

더구나 좌편성향의 전임자들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이번 사건에서도 북한을 덜 자극하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하지하(下之下) 선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남북간 대화가 비록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행위를 시인할 가능성이 전무할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의 역선전과 역공세로 사건의 진상을 왜곡·변질시키는 선전·선동 무대만을 북한측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결국 동맹 외교의 촉구공이 꽤 시원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10페이지에 계속>

<필자약력>1937년 출생.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 졸.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1972년 남북조절위 대변인, 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장. 삼성정밀 사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15대 국회의원. 현재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

특 집

‘천안함 침몰사건’을 대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며



장석정(법대 72년 졸)
일리노이주립대 경영대 부학장

지난 3월 26일 한국의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발생한 천안함의 침몰사건은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도 식연치 않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저 생명을 잃은 장병들과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일 뿐이다.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끔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으로 보는 듯 했다.

지난 2월에는 고국 신문·TV·인터넷 뉴스 등이 온통 백령도 동계올림픽에 관한 얘기만 하더니 이번에는 함정 침몰사건으로 4월 내내 도배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고국은 물론 이곳 동포들도 포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세계 경제대국의 하나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과학·교육·스포츠·문화 등 많은 부문에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호젓하고 뿌듯한 일이다. 이런 현상을 요즘 고국에서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Brand)’ 또는 ‘국격(國格)’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한껏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국격이나 국가 브랜드와는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드러나던,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 지적해오던 한국인의 고질적 국민성의 한 단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도 너무나 감성적이었고 너무나 조급했고 너무나 흥분했다. 사고 후 신문·인터넷 등에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을 보자.

“정부와 군 당국의 사고현장 수습이나 구조작업,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언론의 모습은 정말 짜증나고 어처구니없다” “새배들에게 15분간 대포를 쏘다니 우리 군은 선박과 새배조차 구분하지 못하나”

“최첨단 IT기술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 구조작업도 못하다니 너무나 갑갑하고 화가 난다” “사고 후 초동대응은 한마디로 우왕좌왕, 허접지껄 그리고 오판투성이었다”

집단적 흥분·떼쓰기·저항·쏠림 큰 문제

이성보다 감성에 치우치고 의견 다르면 적으로 간주

“해군은 육지 바로 앞바다에 빠진 배를 이들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고 결국 어선이 찾았다” “사고는 서해에서 터졌는데 구조함은 남해에서 온다니 동해에서 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란 말인가” “침몰선박을 인양하는데 필요한 크레인선은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조받아야 하는데 그 선박이 사고지점까지 오는 데만 4~5일이 걸린다니”

“일관성 없는 정보제공, 발표가 착오와 혼선만 일으켜 애타는 유가족의 슬픔과 화만 돋구었다” “주먹구구식 운송, 낙후된 장비, 인명경시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들에게 감추고 쉬쉬하는 태만 열심인 정부에 화가 난다” “함장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 “생존자들을 군병원에 가둬놓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할 때부터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

“천안함 침몰 이후 드러난 정부의 대응태도는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망하는 정부의 결말을 보는 듯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이명박 정권의 해괴한 언행에 깊이 실망

서 그랬고,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그랬다. 장갑차 사고 때, 황우석 연구조작 사건 때,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촛불 파동 때, 그리고 독도문제, 용산 참사, 동계 올림픽 때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다른 일들이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감정·흥분·쏠림·조급·극성맞음·언론과잉·논리 결여·단세포적 반응’ 그리고 정당할 수 없는 말이지만 ‘떼쓰기, 아우성치고 입에 거품 물기, 조잡한 냄비근성’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의 집단 쏠림 버릇은 사건·사고에 대한 반응 뿐 아니라, 명품추구·과외열풍·조기유학·영어열풍·결혼·와인·성형 같은 유행이나 풍조를 따르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자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입에 거품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유가족들이 부대 철책을 부수고 몰려가 아무나 먹살잡고 “내아들 살려내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역시 고쳐야 할 버릇이라는 생각이다.

냉은탕을 왔다 갔다 하는 버릇, 원리원칙대로 못 하고 또 안하는 버릇, 이성과 합리를 저버리고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는 버릇, 그리고 무엇이든 ‘차근차근’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려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에는 이런 사건·사고 때마다 네티즌이라는 이름 아래 심지어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기까지 하면서 무차별 인신공격과 대정부 헐뜯기를 즐기는 몰염치한 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한국인들은 그들의 정부를 ‘괴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하는 해외언론도 있었다.

어떤 교수라는 사람이 ‘천안함 병사들 돌아오라’는 시를

르면틀리다’ 즉 ‘Different=Wrong’이라는 집단적 일체 성향이 배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에서 홀로 벗어나는 것보다 같이 휩쓸리는 것이 쉽고 편하다.

이러한 집단 쏠림 현상의 바탕에는 집단 속에 개개인의 정체성이 가려지게 되는 익명성이 도사리고 있음도 본다. 그래서 신속성과 보편성에 익명성까지 결합된 인터넷이 한국인들의 집단 쏠림, 집단 흥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해군 병사들은 원래 위험이 가득한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임무 수행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미국에서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금도 거의 매일 전사자가 생기며, 지금까지 5천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죽었지만 그 유족들의 모습은 우리와 달리 차분한 것 같다. 군인의 가족이기에 그렇다 천다면, 가령 9.11 테러로 졸지에 이윽 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나 조종사 출신의 전사자나 전사자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내 남편, 내 자식 살려내라고 아우성치지 않은 것은 우리와는 문화와 풍습과 규범이 전혀 다른 미국이었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부산에 관광왔다 실내사격장 화재로 졸지에 가족을 잃은 일본인 유족들이 보인 차분한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긴 역사를 통해 빈곤과 탄압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한이 맺히고 피해 의식과 열등감이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필요도 없다. 인간도 사회도 국가도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실수와 잘못, 사건과 사고는 언제든 터지게 마련이다.

생존 장병을 환자복 차림으로 인터뷰하도록 결정한 것은 실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비난과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기차가 전복되고 광산이 매몰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할 것이다. 지진·쓰나미·홍수 등 천재지변도 빈발하고 있고 게다가 테러·도발 등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 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집단으로 흥분하고, 집단으로 저항하며 집단으로 비난하고, 집단으로 이리저리 쏠림 것이 아니라 각자는 차분하게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의무·도리·역할·책임을 다하고 가능한 도움을 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다원적·복합적이고 성숙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집단 쏠림, 집단 흥분, 집단 저항 버릇을 떨쳐야 할 것이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두 동강이 난 채로 격침된 천안함의 앞 부분이 인양되고 있다.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 없다” “구조작업을 돕다가 침몰해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의 구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물자와 인력이 천안함에 전부 동원돼 지원이 어렵다는 핑계만 댈다”

이런 반응들은 어찌보면 많은 인명을 앗아간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자마자(왜, 어떻게 일이 터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도로 흥분해 이런 저런 비난과 질타를 이렇게 ‘무더기로’ 퍼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감성적이며 성급한 집단 반응 또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

다. 금용위기 때 금을 모으면서 그랬고,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그랬다. 장갑차 사고 때, 황우석 연구조작 사건 때,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촛불 파동 때, 그리고 독도문제, 용산 참사, 동계 올림픽 때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다른 일들이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감정·흥분·쏠림·조급·극성맞음·언론과잉·논리 결여·단세포적 반응’ 그리고 정당할 수 없는 말이지만 ‘떼쓰기, 아우성치고 입에 거품 물기, 조잡한 냄비근성’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의 집단 쏠림 버릇은 사건·사고에 대한 반응 뿐 아니라, 명품추구·과외열풍·조기유학·영어열풍·결혼·와인·성형 같은 유행이나 풍조를 따르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 띄워 놓은 사람들을 울먹이게 만든 것도, 평소 무슨 일이나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한국인들이기에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다만 한국사회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 슬픔과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만 돋구고 따라서 비이성적 반응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을 가장 흔히 쓰는, 그래서 자기 배우자마저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부르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의문이 없다. 여럿 중에 한 개가 다르다면 그건 ‘다르다’라고도 하지만 그건 ‘틀리다’라고도 하는 우리들의 말버릇 속에는 ‘다

특 집

5.16 군사혁명 49주년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공과



육길원(사대 59)
본보 논설위원

4.19정신 퇴색시킨 5.16

역사를 10년 단위로 구분해 볼 때 올해는 한일합병 망국 100년, 해방 65년, 6.25 60년 4.19 혁명 50년, 5.16 쿠데타 49년, 5.18 광주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주지하다시피 4.19는 1960년, 5.16은 1961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반세기 전 격동의 1년 사이에 학생과 군인이 각각 주동이 된 엄청난 2개의 ‘혁명’을 겪었다.

4.19가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순수한 학생들의 시민혁명이었다면, 5.16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주역으로 한 불과 250여 명의 엘리트 장교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군사 쿠데타였다.

4.19는 처음부터 독재와 부정선거에 비폭력으로 항거한 의거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쟁취가 목표였다. 여기에 비해 5.16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이유로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든 정변이었다.

혁명후 학생들은 캠퍼스로 돌아갔지만, 5.16 주체들은 혁명공약이 완수되면 정권을 민정으로 이양시키고 원대복귀한다는 국민과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권력의 위세와 부귀의 달콤함을 한없이 누렸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국민기만이었음이 실증된 사실이다.

4.19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평등사상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봉기한 위대한 시민혁명으로 학생들이 흘린 피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것으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개발민주주의 국가들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5.16은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민주정권을 강권으로 몰아내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과 같은 민주국가 대열로부터 무지한 아프리카나 남미 여러 나라처럼 쿠데타 국가로 전락해, 이후 전두환과 같은 군부정치 개입의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박정희 과연 그는 누구인가

5.16, 하면 박정희가 연상될 만큼 5.16과 박정희는 거의 동의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카리스마와 강직한 리더십, 의지와 집념, 애국적 영웅심이 쿠데타 성공에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에 이용당하고 배신의 쓴 맛을 본 뒤 미국에 망명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전 의장 장도영(전 육군참모총장)마저 그의 회고록 ‘당향’에서 박정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16에서 취한 그의 행동은

그가 내세운 애국심보다는 그가 지닌 영웅심이 작용한 소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정희는 민족의식과 영웅심이 강했고, 자립자존과 통일을 위해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항상 나와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몰욕적 부패를 혐오했고, 청빈을 군인의 자량으로 삼았다. 나는 그와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를 출중하고 유능한 장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 장군이 친공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불명예에 예편되는 것을 자신이 극구 나서서 2군 부사령관의 보직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는 1917년 경북 구미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자식이 집이었던 시절,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유산시키려고 간장을 마시고 장독에서 뛰어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유산되지 않고 살아날 만큼 뱃속에서부터 지독하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어쩌면 그 강인한 성격이 ‘보릿고개’라는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가난을 극복하게 했으며, 조국 근대화의 불을 붙이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 오늘날 경제대국의 밑거름이 됐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박정희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역대 지도자 중 1등으로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박정희를 긍정하는 사람들이든 부정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인정하는 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도자 1위의 박정희 인기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기는 있을 지 몰라도 존경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집권 18년 동안 너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라, 안보와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잡혀가 고문받고, 조작된 판결으로 몰려 죽었으며, 이민을 갔는가?

언론을 탄압해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보호해야 할 상아탑을 적군처럼 토벌하고, 군을 정치 도구화 했는가?

기억조차 섬뜩한 민비사건, 민청학련 사건, 조작된 술한 간첩사건,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간첩 누명 어부사건, 인혁당·통혁당·독백령 사건 등등.

또한 도덕성·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 정인숙 사건, 박동선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을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역사에서 배우자

영구집권의 길을 튼 ‘3선개헌’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치자. 입에 재갈이 물려 비판을 하지도 못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었던 유신시절에 이르러서 국민의 인권은 조지 오웰의 1984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국 근세사에 제일 존경을 받는다는 박정희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부마사태’로 위기에 몰린채 죽을 때도 필살에서 술과 여자와 간신에 둘러싸여 부끄럽게 끝을 맺었다.

정통성 없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허구한날 긴급조치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탄압을 일삼은 그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다.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는 혁명과 반혁명, 민주주의와 군부독재, 부의 창출과 빈곤, 도덕과 부도덕이 혼재한 위기와 기회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박정희 평가에 있어서 그의 직접 수혜자였던 피해자였던, 그의 공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에도 근거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50년의 과거사를 쟁그리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이며, 개인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의 밝은 것과 어두웠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두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4.19 혁명에 의해 하와이로 쫓겨나 외로운 섬에서 눈을 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지만, 민주국가를 세우고 국가존립의 6.25 전쟁에서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구했으며, 유신 독재자로 부부가 모두 암살로 생을 마친 불행한 군인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수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서강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일 시대, 주인공의 꿈과 용기를 갖자’라는 특강을 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강의 요점을 소개하면서 끝맺으려고 한다.

“후진국으로써 유일하게 미국과 개별적으로 한·미동맹을 맺은 이승만의 외교안보 해안, 백범일지에 나타난 김구의 문화국가의 부드러운 힘, 박정희의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경제개발 결단을 21세기형으로 재창조하자”

한·일관계의 전개와 박정희 시대



김재순(경영대 51년졸)

박정희가 지도력을 발휘한 약 20여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1천644달러까지 상승했고, 그 기세의 연장으로 지금은 2만달러대까지 올랐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의심받을 것도 없이 ‘한국 경제발전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식되고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경제개발 비전의 본질은 타국 개발 경험의 연구에 근거한 귀납적인 방법론에 있었다. 박정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근대화의 사례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 손문(孫文)시대의 중국, 케말 파샤 시대의 터키, 나세르 시대의 이집트 등이 있다. 박정희는 ‘메이지 유신사’는 우리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케네디와 존슨 정권시기 미대통령의 안전보장 고문이며 저명한 경제학자인 월트 로스토 교수에 의하면, 케네디 정권의 많은 각료는 한국의 능력과 잠재적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로스토 교수는 박정희와 협력하도록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

로스토 교수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경제성장의 ‘Take off(개발 도상국이 발전의 경제 상태로부터 자립성장의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로 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거의 채우고 있다고 확신했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Take off를 감독하는 목표를 보기 좋게 달성하고, 한국을 근대적 공업국가로 변

혁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민주화운동의 역제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박정희는 한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발전이 중산계급을 낳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다원주의의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장래에 의지하며 매우 외교를 잘 구사해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갔다.

박정희는 말버릇처럼 “내가 했던 것에 관계해서는 죽어서도 책임을 진다. 반론이 있는 사람은 나의 무덤에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기분전환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새삼 생각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쩌면 민주주의보다 소수 엘리트의 선의의 독재체제가 보다 적합한 정치 양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듯 독재하에서도 국가의 운명은 융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는 흥해도 국민 자신이 어러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한 번 지도자가 떠난 후 국민은 마치 방향을 잃은 양의 무리와 같다. 이것을 실감한 것이 박정희 다음의 한국 정치의 시행착오 20년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나라의 문제는 과잉 포퓰리즘에 좌우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시대에 맹목적인 내셔널리즘에 좌지우지돼 때로는 지정학적으로, 때로는 자유 민권의 절차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타락한 민주 정치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이 노력해 확고부동한 자존심과 책임을 가지는 성인이 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민주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국제 정치의 움직임은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흘러간다. 날마다 잠음이냐 주

변 분위기 등에 얽매어 깊이 흘러가는 목적지까지 마음 쏠리지 않을 수 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최상의 버팀목이 아닐까. 글로벌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국가마다 확고한 국가전략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풍파 속에서 헤매며, 길을 잃고 말 것이다.

한국이 가야할 길, 외지할 수 있는 나라,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그것은 글로벌 기구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우호국과 관계를 굳건하고 깊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모교 총동창회 김재순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다쿠쇼쿠대(拓殖大)주최 한일 협력심포지엄 기조연설 내용을 게재한 모교 동창회보에서 요약해 옮겨온 것이다.

다쿠쇼쿠대 와타나베 도시오(渡邊利夫)학장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게이오대(慶應大)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교수, 릿쿄대(立教大)李鍾元법학부장, 북동아시아 경제포럼 조이제 의장이 패널 리스트로 자리를 함께 했다.



백순(법대 62)

미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요즘 미국 정치의 중심인 미국의 의회 상원에서는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인 금융시장 위기의 원인을 탐색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느라 떠들썩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되고 있는 일은 2가지다. 하나는 미 금융가의 대형 금융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금융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청문회다. 다른 하나는 방만한 금융시장을 규제하자는 금융 규제안을 제정하는 일이다.

골드만삭스 청문회와 금융규제안 제정은 외형상 다른 일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에게 편명을 가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 경제 제도인 시장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들추어내고 재발방지의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주식시장 감독기관인 유가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가 골드만삭스를 고소한 것은 금융 파생상품(Derivatives) 중 하나인 Abacus 2007-AC1이라는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s Obligation (CDO)을 판매하면서 그 파생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Subprime Mortgage Securities를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 자체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 불기 시작한 Subprime Mortgage 거품 폭발로부터 시작한 금융·경제 제위기에 골드만삭스가 원인을 제공한 주동자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다.

Synthetic CDO와 같은 금융 파생상품과 연관된 금융관리자들은 4부류다. 금융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금융 투자은행(골드만삭스), 금융 파생상품에 보증을 첨가시켜 금융 파생상품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회사(ACA Capital Holdings), 금융 파생상품의 기본이 되는 모기지 관련 유가증권에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해주는 신용평가기관(Moody's), 금융 파생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펀드(Hedge Fund) 등 4개 금융관리자들이다.

국민경제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의 흐름을 원활히 해준다는 측면에서 금융 파생상품이 절대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경제원리다.

그러나 금융 관리자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기의 이익만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하기 마련인 투자위험을 분산장벽시켜 투자자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추세가 지난 수년간 금융시장에 편만하게 폭증해 왔다.

어느 예측에 의하면 금융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600조 달러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세계 총 경제규모의 11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골드만삭스의 고소 사건은 그 합법성 여부가 앞으로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4부류 금융 관리자들의 금융파생상품 창출·관리행위가 어떠한 법이나 규제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는 법 이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 의회 상원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논란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소비자보호와 은행구제, 파생상품 시장규제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금융 파생상품시장의 규제다.

금융시장을 대략 크게 나누면 은행금융시장,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금융파생상품 시장 등 3가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2시장과 관련해서는 규제법과 규제기관이 존재하지만, 아직 금융 파생상품시장을 규제하는 법과 감독기관이 없어 거대한 규모의 금융 파생상품시장이 너무나 자유롭게 배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주택버블 및 자산버블이 금융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활동으로 연유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활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규제하자는 것이 현재 미국상원에서 논란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법안의 골자다.

골드만삭스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 파생상품 창출행위의 합법성과 미 상원에서 논란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법안을 대하면서, 경제행위에 있어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를 복상했다.

골드만삭스 청문회를 주관했던 미 상원 금융분과 소위원장이었던 레빈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합법성 여부의 차원을 넘어서는) 윤리와 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천명했다. 미 상원에 상정돼 논란되고 있는 금융

미 정부의 금융파생상품시장 규제 윤리성과 투명성은 금융거래에 절대 불가결



시장 규제안의 골자는 금융시장의 붕괴를 주동했던 금융파생상품의 거래를 공개시장 거래로 만들자는 데 있다.

'윤리성'과 '투명성'은 경제행위, 특히 금융거래행위에 있어서 절대 필수불가결의 원칙이겠지만, 그것에 이르는 길,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미국,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깨닫고 그에 이르는 길을 모색함이 요청된다. '율법의 의'로서 충분한 것이냐? '율법의 의'의 결과는 무엇이나? 하는 질문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르는 길은 무엇이나, 하는 질문의 대답을 성경에서 찾음으로써 금융시장 거래의 기독교적인 원리를 세워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은 '율법의 의'만으로는 참된 의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의 의가 악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을 더 조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율법과 계명 그 자체는 '기록하며 의로우며 선하지만 죄가 죄 됨을 깨닫게 해준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죄가 기회를 타서...(우리 인간)속에서 각양의 탐심을 이루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계명(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율법 즉 규제 자체는 의롭고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깨달은 죄를 적법성이라는 외식을 내걸어 율법의 의를 교묘히 피해 더욱 심각한 죄를 짓게 한다는 율법적 의의 한계를 알려 주는 성경적 교훈이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시장거래의 관리자들은 합법성이라는 율법적인 의를 내세워 죄를 더 죄가 되게 만들고 온 금융시장과 온 국민경제시장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미 상원에 상정돼 있는 금융시장 규제법안도 현재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의 한계성

을 알고 규제법의 시행을 올바르게 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도입해야 참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진리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탐내지 말라한 것(율법의 의)이...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라고 설명하면서, "남을 사랑(하나님의 의)하는 자는 율법(율법의 의)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바울은 제자 역설한다. "사랑(하나님의 의)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율법의 의)의 완성이니라"라고.

그렇다. 율법의 의에는 한계성이 있고, 아니 오히려 죄를 더 죄 되게 하는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만으로는 참된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즉 사랑이 도입되어야만 율법의 의를 완성하고 참된 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 관리자들이 합법성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 사랑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레빈 상원의원도 천명했다.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의 이해보다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끊임없이 앞세웠다"고.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금융시장 규제법안도 금융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제도화하겠지만, 그 규제를 시행할 때 금융시장 거래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의(고객과 국민경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 등)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강조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이 바로 제2, 제3의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방지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영춘송시(迎春頌詩)

봄이 온다

김태환(법대 46)

봄이 온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온다

지평선 저 멀리 어른거리는
아지랑이

마을에 보슬 보슬 내리는
보슬비

얼음 녹아 졸졸 흐르는 시냇
물 소리

뾰 동산 솔밭에 재재거리는
산 새 소리

냇가에 돌아나는 누런 버들
강아지

들에 나물 캐는 아낙네의 손
끝에 봄이 온다

그리고
남쪽에서 산들바람 불어와
제비 돌아오고

진달래 개나리 꽃봉오리 열
리면

기다린 봄이 멀리서 가까이
서 온다

특별기고

아이티 의료 선교<상>

즉석 반달형 천막 야전병원서 진료 부활절 가난한 이웃사랑

홍건 동문(의대 54)이 지난 4월 부활절을 전후해 지난 1월 강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비록 닷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혼자서만도 250여명을 진료하는 의료 선교를 했다고 한다. 홍 동문의 의료선교 기행문을 2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1월12일 아이티의 수도 Port-au-Prince에서 16마일 서쪽 레오콘을 중심으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나 그리지 않아도 서반구중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무수한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최근 가장 큰 지진이었던 1994년 캘리포니아 지진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도표 참조>.

이같은 무서운 타격을 받은 아이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아이티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집단수용시설로 사용하던 섬이었는데 노예들의 반란으로 1804년 흑인들만의 공화국으로 세계 최초로 독립한 나라였다.

그러나 잇따른 독재와 부패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1986년 듀발리에 정권을 축출하는 것으로 희망이 보이는가 싶었으나 연이은 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의 연속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실패했다.

처음 선출된 아리스테 대통령은 몇 달만에 군부에 의해 도중하차, 관리들의 부패와 인권탄압으로 국민들이 미국 등 해외로 망명했다. 참고로 미국내 흑인중 1.2%가 아이티 계통으로 의사·박사·교수 등 지식인의 4분의 1이 아이티 후예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토가 2만8천 평방 킬로미터로 좁은 땅에 700만이 살고 있어 북남미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90%가 흑인이고 나머지가 유럽인 혼혈에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나 불과 10%만 사용하고, 대부분 아이티

특유의 크레올어를 사용하는데 3분의 1만 글자를 읽을수 있을 정도로 문맹율이 높다.

서반구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60~80%가 실업자고, 국가의 빚이 1인당 103 달러에 국민소득이 400달러, 미국민과 비교하면 1.9%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별안간 수많은 사상자를 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가서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전 대종 미치(Mitch)로 타격받은 온두라스를 두번이나 가서 도와준 기관에 연락했으나 경험에 관계없이 전공이 방사선과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한국 선교단체인 MOM(Messengers of Mercy)에도 연락했으나 일정 차이로 같이 가지 못하게 됐고, 종래 같은 과에서 일하는 분들과 휴가계획을 바꿔 가면서 4월 초 Mercy Ships를 통해 Mission of Hope Haiti라는 선교 기관과 같이 사역을 가게 됐다.

그 선교기관은 이미 12년 전 아이티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고아원 경영및 학교, 진료소를 통해 아이티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치료해왔다. 지진 후에는 300만끼니 이상의 식사, 2만갤론의 음료수, 1천개 이상의 천막을 제공하고 매일 100~200명의 환자를 돌보고 140명 이상 수술을 시행했으며 7일 24시간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다.

동행 의료팀은 Austin Medical Relief for Haiti로 주로 텍사스에서 정형외과팀이 수술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고 마취과 의사와 내과 의사가 도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었다. 내게는 방사선과 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가를 제삼 불어보고는 같이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날짜를 계산해 보니 부활절 전 날인 토요일 미국을 출발해 부활절을 아이티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집사람과 목사님께 양해를 드리고 오지에서 상처받고 집없는 형제들과 같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리라 생각하게 됐다. 2003년



홍건 동문이 긴급히 후송돼 온 환자를 병실로 옮기기 위해 엠블런스에서 내리고 있다.

몽골 의료선교 때도 부활절이었는데 특히 그때는 SARS 전염병이 홍콩·중국을 비롯해 아세아를 공포로 몰고 갔을 때라 오지에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명깊은 부활절을 맞은 일이 회상됐다.

일단 병원에서 휴가를 받고 의사와 직원들에게 아이티 방문소식을 알려 동참 자원자들로부터 선교비와 여러 물품을 가방에 담을 수 있는대로 받아 짐을 싣다. 공항에서 두개 밖에 부칠 수 없다는데 막무가내로 벌금을 물고 더 부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됐다.

시카고에서 마이아미를 거쳐 불과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이티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은 긴장과 초조에서 우러나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승객들은 모두 나름대로 자원 봉사자들로 가득 찼다.

티셔츠에 'Restore Haiti'라는 구호를 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학생들과 인솔자가 입은 티셔츠에 'I'm headed to Haiti... Where are you going?'이라는 글이 있는 분들이 옆에 앉았기에 물어보았다. 그들은 테네시주 녹스빌의 교인들로 36명의 젊은 학생들이 일주일 간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아이티에 착륙, 비행장을 나서자마자 도로변에는 임시 천막에 피난민들이 즐비했는데 하루 하루 힘든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약 40분 지나 목적지인 Hope House에 도착했다.천막에서 잘 준비를 하고 슬리핑 백에서 자겠다니까 바네사 선교사가 방안에 병크 베드가 하나 비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고, 불편하면 천막에서 자도 좋다고 했다.

좁은 방에 병크 베드 세개가 있어 여섯 명이 함께 쓸 수 있는데 이미 아래 침대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 위에 있는 한 개를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그래도 밤에 발전기로 전기가 들어오고 찬물로 샤워할 수 있는 화장실이 남녀 따로 돼 있어 일주일 동안 세수도 못할 각오로 왔다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모기가 말라리아 균을 감염시키기에 신경질적으로 모기약을 바르고 예방약을 먹고 단단히 준비했지만 밤새 모기에 뜯기면서 첫날 밤을 보냈다.

부활절 아침이라 밖에 나가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멀리 웅기종기 천막촌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 갈 것을 격정하는 불쌍한 아이티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시 아침식사후 9시 반 예배를 위해 교회로 갔다. 처음 500명 이상 될 듯한 성도들이 언제 지진이 일어났느냐, 의심할 정도로 모두 깨끗한 옷과 정장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점점 성도들이 몰려와 빈자리 없이 1천명 이상이 지붕만 있고 벽이 트인 공간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도 흥분한 마음으로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영어와 크레올로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을 드릴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글 가사로 목이 터져라 불렀다.

다음 순서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모두 앞으로 나가 떡을 떼고 잔을 받아 각자 자리로 돌아와 사회자 인도대로 1천여명이 같이 성찬을 받는 순간,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을 느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을 감동시켰다. 빨리 아이티가 복음화되고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섬기며 나라를 재건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과 부동켜 안으며 서로 위로했다. 비록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 떼서 와서 도와주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주는 기회가 돼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에 부활절을 가난한 이웃들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후에는 수술실에서 수술 기구를 정리하고, 창고에 쌓인 여러 나라의 구호 의약품과 장비를 정리했다.

학교 건물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학교를 이턴 주부터 다시 열기로 하고 커다란 반달형 천막을 새로 지어 병실겸 창고로 사용키로 했다.

바다를 콘크리트로 다지고 천정에 전기등을 달아 보기도 그렇듯 한 야전 병원을 지었다. 월요일부터 다른 병원에서 후송돼 올 환자들을 위해 침대와 매트리스에 시트를 덮고 배개를 설치해 제법 병원같이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녁 식사후 한 두명씩 오는 환자를 받아 진찰하면서 내일 아침 어느 환자가 제일 먼저 수술실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정맥주사를 시작하며 모든 수술준비를 했다.

<6월호에 계속>

규모 7.0의 강진은 대통령궁까지 붕괴시켰다.

길거리마다 지진난민의 천막이 길게 늘어져 있다.



	캘리포니아	아이티
일시	1994.1.17	2010.1.12
사망	60명	22만2천570명
부상	7천명	30만명
집 잃음	2만명	100만3천명
건물붕괴	4만동	18만8천383동

기 고

지구 온난화<상>

인류생존이 걸려있는 문제

화석연료 사용증가 이산화탄소 급증



이용락(공대 48)

Ph.D.in Mechanical Eng.

근래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溫暖化) 문제는 지난 수백년간 진행돼 온 현상이며, 그 중에서도 지난 50년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몇 만년을 주기로 보는 지질학적 역사로 보면 지구는 냉각화 결과 빙하기도 겪었다. 한 때 유럽의 대부분은 빙하 속에 있었다고 한다.

이런 냉각화로 인한 빙하시대의 주기적 출현은 지구가 자전(自轉)하면서 태양 주위 궤도(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면에 대한 수직선과 그 자전축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지구는, 현재론, 23.44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공전(公轉)하고 있지만, 이 각도는 지구의 긴 역사를 통해 지난 41,000년 동안 21.1도에서 약 24.5도 사이로 변화돼 왔다.

이 자전축의 각도 변화도 지구 냉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것은 이 글의 주제 밖이다.

여기서는, 인류가 문명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화석연료(化石燃料)의 계속적 사용과 그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국한한다.

지구 대기온난화 현상이란, 지구 대기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지구촌 기후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그 결과 지구는 큰 재난의 위험에 당면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인류가 문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증가와 부존자원의 유한성 문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는 앞으로 적어도 100년간은 문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에너지는 어떤 장비를 통해 일(work)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또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문명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되는 열 에너지(thermal energy), 기계적 에너지(mechanical energy), 광에너지(light energy), 전기에너지(electrical energy)와 잠재에너지(potential energy)등으로 인류의 문명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에너지는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는 있으나, 전체 에너지 총량은 불변하다는 에너지 보존

태양에너지에 기본을 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사용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인간은 자연과 매우 상호부조적인 관계에 있었다. 즉 동물은 호흡으로 공기 중의 산소를 취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고, 곡식이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땅에서 얻은 물로써 광합성(photosynthesis)을 해 식량을 생산화물을 공급한다.

사람과 동물은 이 식량을 먹고, 노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러한 순환적 생태체제 아래서 공존해온 인류와 자연의 관계는 1,700년대 James Watt(1736-1819)에 의해 발명된 증기기관(steam engine)의 출현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화석연료인 석탄을 연료로 나온 열에너지를 사용해 고압



사진은 지구 온난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 뉴욕이 모두 물에 잠긴다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범칙(열역학 제 1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에너지 변환의 한 가지 예로 수력발전의 경우를 고찰하자. 즉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이, 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물보다 많은 잠재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높은 위치의 물을 낮은 위치로 흐르게 하면 이 잠재에너지가 수력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얻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시대 인류는, 주로 곡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량, 나무, 바람, 흐르는 물 등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기관을 돌림으로서 옛날에 불가능했던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인류문명 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던 제 1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증기기관은 기계문명을 급속도로 발달시켰으며, 그 후 이보다 고급 원동기인 가솔린 엔진·디젤기관·증기터빈·가스터빈 등이 속속 개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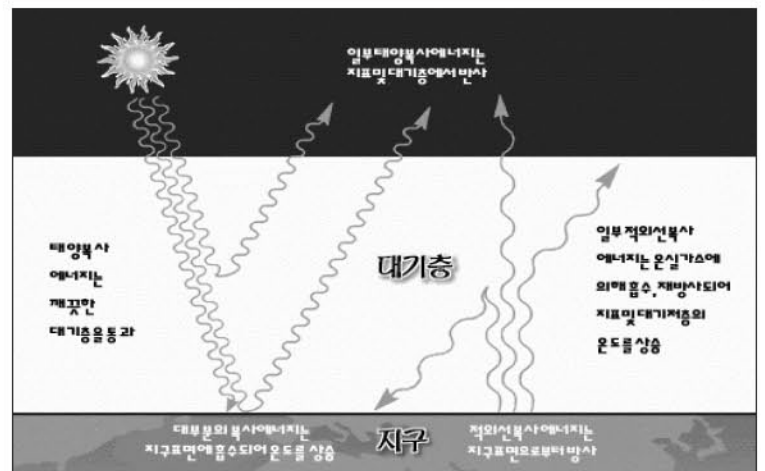
이들은 모두가 화석연료인 기름과 천연가스를 사용해 연료 속의 성분인 탄소와 공기중의 산소가 화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이들 연료들은 아직도 다른 에너지 자원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한편,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돼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를 일별하기 위해 과거 2천년 동안 인류의 에너지 소모 증가율을 살펴보자.

전 세계 인구를 2천년 전 약 2억명으로 잡고, 현재의 인구는 약 60억명으로 추산할 때, 지난 2천년 동안 30배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세계적으로 총 에너지 사용량은 그 기간 중 무려 3천배



↑ 이산화 탄소 등에 의한 지구 온실효과는 곧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

로 증가했으며, 1인당 에너지 소모량도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2~3%씩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 2%의 증가분은 2천년 전 인구가 1년간 사용한 총에너지량의 60배다.

이같은 급속도의 에너지 증가율과 더불어 세계적 에너지 사용 분포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약 50년 전만 해도 세계 에너지의 70%를 미국이 사용했으나 오늘 날에는 많은 개발도상

국 400 년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모든 지하자원은 결국 유한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인류에게는 부존자원 유한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진행 추세다.

이는 마치 달려오고 있는 기관차의 위험처럼 인류 생존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일찌기 이 문제를 과학자들이 염려했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과 재난을 회피할 방안의 장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됐다.

지구촌 온난화 문제의 핵심은 대기 속의 여러 기체 중에서 주목되는 '지구온난화 가스(green house gas : GHG)' 특히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의 증가다.<도표참조>

일견, 우리는 에너지 사용만 줄이면 될 듯 하지만 인류의 에너지 소비수요의 증가가 예견되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화석에너지 자원이 앞으로 50~100년간은 부득이 의지해야 할 에너지 자원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지구는 열에너지를 태양에서 끊임없이 복사현상을 통해 받고 있다.

이 복사에너지는 지구가 다시 그 1/3은 우주공간에 반사해 2/3은 흡수했다가 주로 야간에 우주공간에 발산함으로써, 지구는 열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게 돼 왔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면 기후 변화로 오는 재난 때문에 인류는 생존할 수 없게 될런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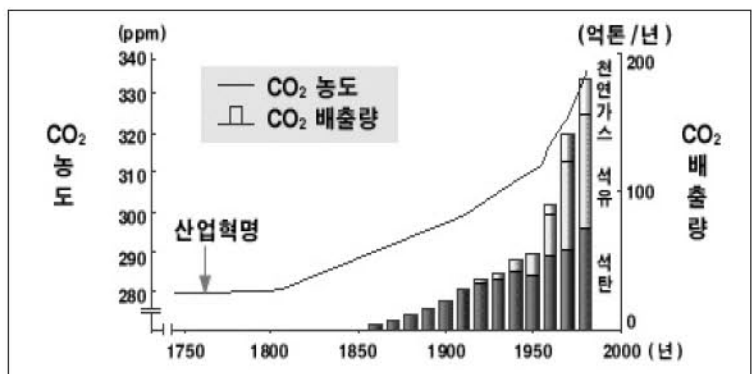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현상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보자.

비닐 온실(Vinyl House)에 들어가면 바깥보다 따뜻함을 느낀다. 이것은 태양열 에너지가 비닐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가 반사해 밖으로 나올 때, 비닐이 그 일부를 차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즉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중에 섞인 이산화탄소는 이 온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위 그림참조>

이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태양열과 같은 복사에너지를 지구를 향해 발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가속된다.

<6월호에 계속>

↓ 이 도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필

까마귀 이야기

‘반포지효’ 일깨워준 새



정흥택(상대 61)

얼마 전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집사람과 나는 필라델피아 교외의 나비스 타운을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마을이라 높은 빌딩은 보이지 않고 가로수와 2~3층짜리 건물들이 잘 어우러지고 연이은 상점들의 쇼윈도가 아주 예뻐했습니다.

주말이라 차도 많지 않아 집사람에게 운전권을 부탁하고 나는 옆 좌석에 앉아 창가를 스치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도로 저 앞에 무슨 까만 물건이 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길 가장자리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 저게 뭐지?”

나는 잘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리고 우리 차와 그 까만 물체의 거리도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그 움직이는 물건은 까마귀였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한 데 엉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한 듯 했고 성한 두 마리가 다친 녀를 길가로 밀어내는 중이었습니다. 까만 날개를 퍼덕이며 땅에 먼지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그 동료들을 밀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 어, 스톱. 스톱!” 나는 급히 외쳤습니다. 집사람은 핸들을 돌려 간신히 그들을 피했습니다.

“후유” 안도의 한 숨이 나오더군요. 이제 내 차는 그 까마귀들을 뒤로 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비꼬아 뒤 창으로

적거리니 나머지 두 마리가 달려들어 길가 쪽으로 밀고 끌고 하는 순간에 아마도 우리가 그 현장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새들도 저런 희생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날지 못하는 새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다른 새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은 몇 번 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다행히 셋이 폐죽음은 면했지만 그 부상병을 나무 위까지 데려다 놓아야만 안전할 텐데. 내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평소애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까만 몸이며 못생긴 부리, 꺼억 꺼억 불길한 울음 소리, 쓰레기 차가 오는 날 내놓

까마귀는 어미새가 늙거나 병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새들이 먹이를 물어다 어미를 봉양하는 새다

들려다 보았습니다. 한 데 어우러진 세 까마귀가 간신히 길가 쪽에 도착한 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뒷차에 가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났을까? 짐작컨대 길 가운데 있는 다람쥐 같은 동물의 시체를 세 식구가 같이 정신없이 뜯어 먹고 있던 중 빠르게 달려 오는 차를 한 놈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날개를 상한 게 아닌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길 가운데로 툭 떨어져 허우

은 쓰레기 백을 마구 젖어내다 헤쳐놓는 행방궁... 미워해야 할 이유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본 까마귀는 경이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까마귀에 대해 조사해 보았죠.

한국에서도 이제는 까마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세년스런 겨울 아침, 고목가지 위에 앉아 서리 내린 마을 들판을 굽어보던 그 까마귀들.



한국 사람들은 그 색깔과 울음 소리와 썩은 고기를 먹는 식성을 미워해서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까마귀들이야말로 몇 천 년을 우리 민족과 교락을 같이해 온 친구인데 말이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농부들은 까마귀가 곡식을 쪼아 먹는다고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다 영리한 새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적으로 정과 의리가 두텁다는 것입니다. 어미 새가 늙으면 자식 새들이 먹이를 물어다 봉양을 한답니다. 그것도 3년 내지 4년까지도.

그런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오랜 옛날에 알았을까요?

옛말에 ‘반포지효(反哺之孝)’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과 같은 효도’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까마귀들이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날 저녁 그 까마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정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교 개교원년 공청회 개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모교 기획처가 최근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교원년 조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작년 3월20일 정기총회의안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교 개교원년 제정 건의안’에 대해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모교 김신복 부총장, 이근실 기획부처장, 이태진 명예교수와 보직교수 및 단과대 학장과 임광수 총동창회장, 손일근 상임부회장, 윤근환·이해원·이상혁·공대식·신현웅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사학과 이태진 명예교수가 모교 창립과정과 각 단과대학, 국내외 주요 대학의 개교원년 설정, 고종시대 관립고등교육기관과 경성제국대학 설립 배경 등을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를 대표한 법대 김도균 교수는 “개교원년 조정은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대 조국 교수는 “개교원년 조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단과대학들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관립고등교

육기관 중 가장 앞선 법관양성소 개교일인 1895년 5월 6일(양력)을 택한 데 대해 역사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대 황상의 교수는 1800년대 말 설립된 의학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과대 역시 개교원년을 언제로 정할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수 총동창회장은 “세계 명문대학을 방문할 때마다 짧은 개교역사로 인해 서울대의 높아진 위상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외에서 실사하는 명문대 순위에서 대학의 역사와 전통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원년찾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손일근 상임부회장은 “총동창회에서 모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운동을 펼치며 ‘정통과정제정’ 단행본도 발간하게 됐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정서적으로도 역사적 DNA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교 원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혁 부회장은 “모교가 법인화 되는 길목에 놓여 있는데, 개교원년을 찾아 역사성의 날개를 달아준다면 모교는 더욱 멋진 비상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4페이지에서 계속>

설령 잘 되더라도 국제적 흥정을 통해 아무 실효성없는 유명무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상지상(上之上) 대책은 만약 물증에 의거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는 즉시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이스라엘식 일벌백제(一罰百戾)의 화력행사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백령도 대안(對岸) 사곶 기지의 북한측 잠수정 및 잠수함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공격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사건 제발을 억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저항할 경우 더 큰 응징을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은 전쟁도발 목적이 아니라 1회성의 제한적인 것이므로 여타의 남북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 마무리의 중지중(中之中)대책은 북한에 대해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은 물론 재산상 피해와 희생인명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수락할 때까지 일체의 남북관계를 동결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상황으로 볼 때 지

금 시점에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동결·단절하는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면 북한에게 생명선이 단절되는 공통의 불안이 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 되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진화위복의 계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상지상’ 대책의 경우 북한의 만발로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북한의 행보는 큰 소리치는 핵무기와 유도탄 등 소위 비대칭성 무기체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동맹만 확고하다면 북한 지도부가 결코 전면전 도발은 물론 생화학무기 사용도 쉽사리 결심할 수 없게 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이같은 단호한 대응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한국간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동시에 북한과 관계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사랑하고, 격정하고, 지키려는 모든 애국민들로 하여금 전분사의 각오로 뭉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행문

에덴동산의 유적지를 찾아서

대홍수때 밀려온 게 아닐까?

‘불의 계곡’에서 ‘에덴’을 보다

강화영(문리 50)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때 같이 졸업한 동기생은 약 270명이었는데 이 비극적 전쟁 속에서 33명이 행방불명됐다.

올해 2010년은 고교를 졸업한 지 60년이 흘러 나이가 80세가 되는 해다. 그동안 행방불명자를 포함해서 160명이 사망하고, 아직 100여명이 남아 그중 50명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주해 살고 있다.

지난 3월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동안 Las Vegas(Nev.)에서 80세를 자축하기 위해 만났다. 동기생 중 참가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비록 모진풍파를 헤치며 80평생을 살았지만,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게 되니 부러울 것 없는 기쁨이요, 행복이었다.

4일간의 일정 가운데 버스관광으로 ‘불의 계곡(Valley of Fire)’도 포함됐다. 나는 이곳에서 독자가 믿거나 말거나, ‘에덴동산의 유적지(?)’를 발견했다.

이 공원(The Valley of Fire State Park)은 Las Vegas에서 북동쪽 35마일에 위치해 버스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화성암과 부식된 붉은 토사 등으로 덮여진 산악지대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바위 구조물로 장관(裝觀)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산악지대가 붉은 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돋이 무렵과 질 무렵에는 태양 빛에 반사돼 마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불꽃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광경에 성경 창세기 3장 22절이 머리를 스쳐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추방하고 동산 동쪽에 그룹천사를 배치해 사망에 화염검을 세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이곳이 에덴동산의 유적지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동산의 모양새와 위치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또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에서 네 강은 첫째는 ‘비손’ 강으로 순금과 진귀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월라’를 굽이쳐 흘렀다.

둘째는 ‘기혼’ 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디그리스’ 강으로 ‘앗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동산의 위치에 관해서는 신학자와 고고학자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못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셋째 강과 넷째 강은 페르시아 만에서 홍해로 흘러 들어간 강줄기이기 때문에 중동의 남 메소포타미아의 모처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류사회의 창조는 5-6천년에 불과하며 노아 방주와 연관된 대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크나큰 사건이었고 Las Vegas의 동쪽에 있는 애리조나 주의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이 대홍수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생긴 대협곡이라 가정한다면 에덴동산도 이 대홍수 때 네바다주로 밀려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네바다주의 어원도 이상하지 않은가. 관광 안내원의 만담 속에서 얻은 힌트(?)지만, 한국 관광객이 바다가 4개 있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바다는 간 곳 없고 어찌 사막 밖에 없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어찌 됐든 네 강 가운데 두 강은 아직 중동에 남아 있지만 첫째 비손 강과 둘째 기혼 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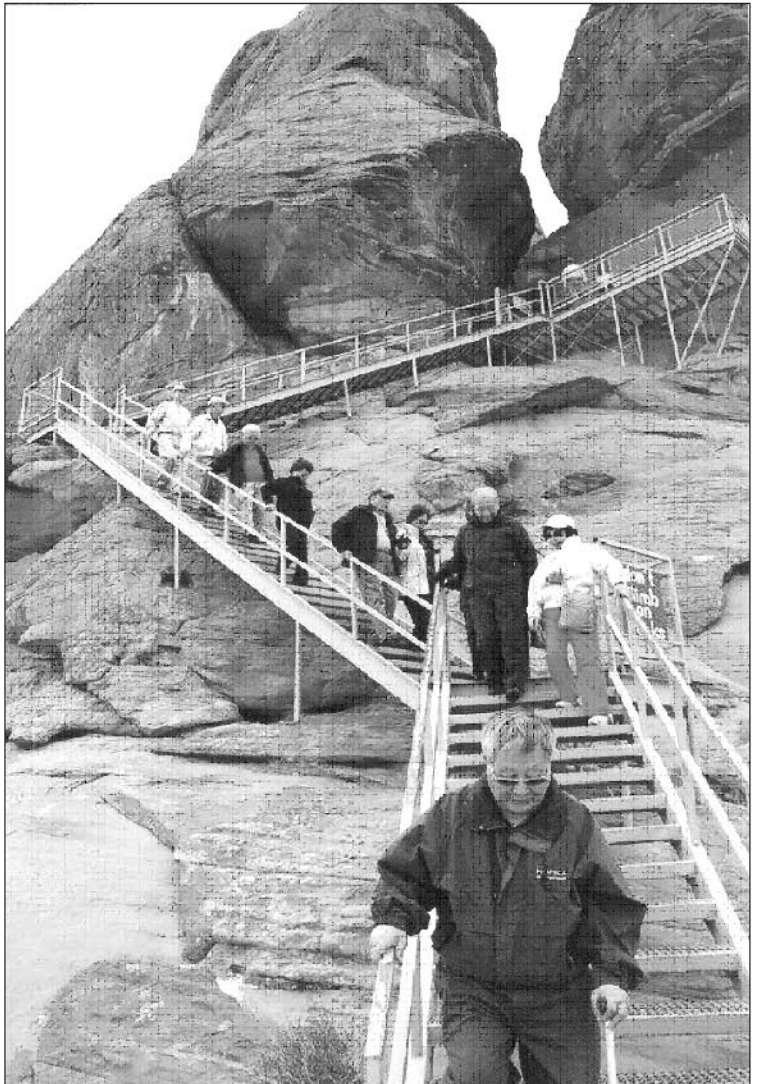
나는 이 첫째 비손 강을 Las Vegas의 동쪽에 있는 후버(Hoover)댐 근처에서 찾을 수 있었다.

후버 댐은 두 개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미드 호수와 모하부 호수가 그것이다.

그 중 남동쪽에 있는 모하부 호수가 에덴동산의 첫째 비손 강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손 강은 순금과 진귀한 보석이 있는 하월라 땅을 굽이쳐 흘렀다고 한다. 모하부 호수의 하류에 오트만 금광촌이 있는데 이 곳은 1931년까지 금을 채굴하기 위해 모인 인구가 1만5천명이었고 약 200만 온스의 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 금광은 1942년 폐광됐다.

그리고 에덴동산을 적시고 흐른 4강의 원천인 동산은 Las Vegas에서 동쪽 8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추나무밭, 일명 China Ranch에서 발견했다(?).

이곳은 70년전 중국인이 발견했다고 해서 ‘China Ranch’라고 부르게 됐지만 지금은 미국인 한 가정이 대추나무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숨은 오아시스(Hidden Oasis)’라고도 한다. 사막과 불모지 속에



강화영 동문(앞쪽)이 Valley of Fire'의 암벽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해발보다 낮은 분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 없다.

이곳에는 신기하게도 개울물이 흘러 대추나무를 무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 나무들은 종려나무(Palm Tree) 같이 생겼는데 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열매 맺고 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심으시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이 대추나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나무들은 40종이 넘고 대추씨가 있고 열매는 당분이 풍부하다.

Las Vegas 일대의 지층이 대홍수로 밀려 왔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China Ranch의 ‘Tecopa’라는 온천장이다.

이곳 일대는 아직도 지층이 물렁물렁하고 땅 속에서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온다. 이 온천 근처에는 자수정과 벽옥(Jasper) 등의 보석이 나오는 광산이 많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온천장에는 남녀가 벌거벗고 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도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는 생각이 난다.

끝으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심어 두었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원죄를 지어 이 동산에서 쫓겨 날 때, 선악나무는 없애 버렸고,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천사를 배치하셨고 화염검을 세워서 보호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 생명나무를 두 곳에서 발견(?)했다. 하나는 California와 Nevada 경계선에 있는 Sequoia National Park에 있는 ‘Sequoia’ 또는 일명 큰 나무들이 생명나무(?)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 생물학자는 이 큰 나무 즉, Sequoia는 2,500년 내지 3,000년 묵었고 아직도 죽지 않고 자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무의 하나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Las Vegas의 북쪽에 위치한 Great Basin National Park에 있는 ‘장수소나무’다. 이 소나무는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한다.

만일 창조과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구생성의 측정치를 사용한다면 Sequoia나무나 장수소나무의 연령이,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창조하신 6천년의 연대와 일치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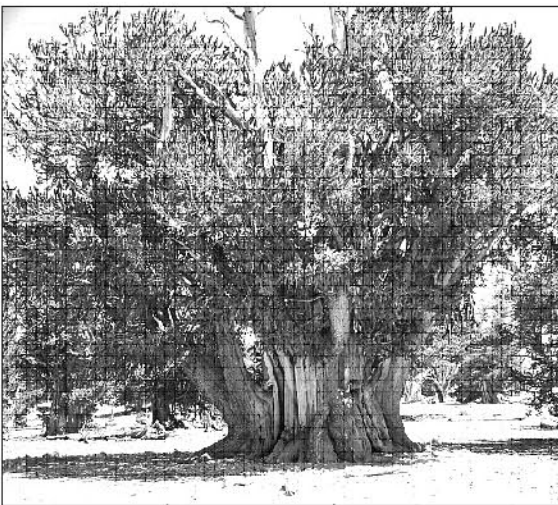
다시 생각하면 Las Vegas가 위치한 곳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하는데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 즉 인류의 고향인 이 동산이 그리워 수없이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금지구역으로 만드셨기에 모든 시도는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으로 이름지어졌지 않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우리 선조들은 그 에덴동산의 문턱에 그와 비슷한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Las Vegas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들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후학들이 한번 깊이 연구해볼 만한 소재가 아닌가하여 서술했다.



왼쪽이 Sequoia, 오른쪽이 Bristol-cone Pine Tree



기 고

Aging-Ailing-Longevity

노화와 수명은 불가분의 관계

항노화, 예방과 회복이 장수 비결



강수상(의대 53년졸)

지난 2월 22일자 주간지 'Time'에 22페이지(전체 지면의 3분의 1)나 되는 '장수의 과학'이라는 글이 실린 것은 건강문화와 장수문화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밀어닥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노화 문제는 그동안 우리 생활의 습성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점에서 노화문제가 전문 분야에만 관계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할 것 같다.

노화가 없으면 영생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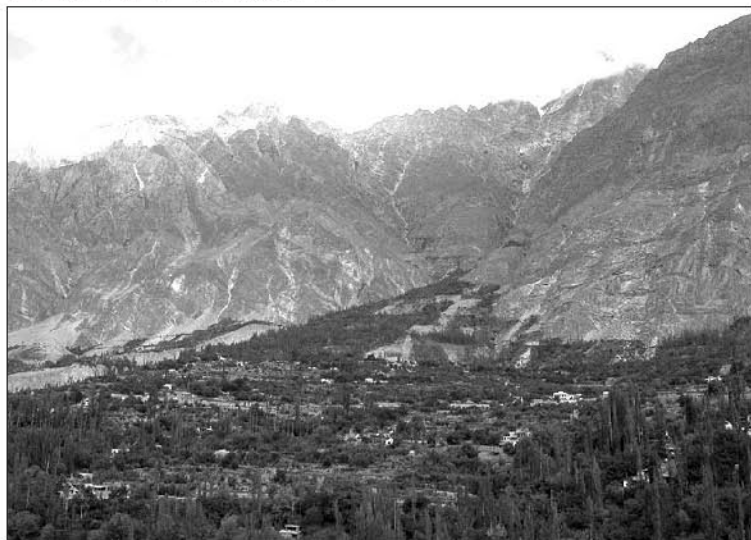
노화(老化)는 생리기능의 진행성 상실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죽음의 확률이 증가해가는 점에서 노화와 수명은 불가분의 관계다.

좀 더 구체적인 노화의 과정을 보면 제1단계로 신진대사의 불균형이 오며 이로 인해 제2단계로 핵산·단백질·지질 같은 거대분자나 이로 만들어진 세포 내 구성체에 손상이 오고 이 손상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제3단계로 병리적 변화가 일어나 질병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노화가 없으면 생의 끝이 없는 것인가. 최근 출판된 'Henrietta Lacks의 영생'이라는 책은 1951년에 죽은 그녀의 조직으로 배양한 세포가 오늘 날도 왕성하게 증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 시작이 그녀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라 하더라도 200조의 분화세포 집단으로 구성됐던 그녀의 몸과는 다르다. 비록 이 세포를 다시 분화시켜 한 인간이 생기게 하더라도 1951년의 그녀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로 이해돼야 할 것

아래의 사진은 에콰도르의 빌 카림바, 러시아 코카서스의 아브하지아,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함께 세계의 장수촌으로 알려진 네팔 북쪽 티베트 인근의 훈자 마을 전경이다.



같다. 세포의 계대배양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 사람의 영속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공배양한 세포에서도 그것이 사람의 정상 세포인 경우 세포분열이 무한정 되풀이 되지 못하고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수명의 한정성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DNA 양쪽 끝에 이어져 있는 Telomere는 DNA가 복사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 한계에 이르면 DNA 복사가 멈추고 세포분열의 끝이 오게 되는 작용이 밝혀졌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세포가 다 이행지는 않다. 적혈구·백혈구·혈소판 같은 혈액의 세포를 계속 공급해주는 골수의 줄기세포나 창자 표피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에는 Telomere의 모자라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어 결함이 없는 완전한 DNA가 계속 복사되기 때문에 세포분열의 정지가 없다.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 이런 장치가 있어 없어진 뇌세포나 근육세포, 그 밖의 더 이상 분열되지 못하는 세포들을 재생시킬 수 있다면 노화의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HeLa세포(Henrietta의 암 조직에서 계대 배양된 세포의 이름)같이 암세포의 무한 증식도 같은 원리에 근거한다는 데 있다. 분열이 정지된 분화세포에서 Telomere합성효소가 활성화되면 이것이 암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소작용의 억제 또는 암 발생을 예방하는데 불가결한 장치라 보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Telomere의 활성화로 노화회복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현재로는 지배적이다. 같은 목적으로 배아 줄기세포에서나 혹은 골수세포 같은 성인 줄기세포에서 필요한 분화세포를 만들어내려는 연구도 현재로는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

하고 있다.

분화세포의 노화

신체의 각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된 세포는 분열이 그 이상 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에서 말은 생리기능을 감당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 세포로 교체되지 못하고 기존 세포를 탈없이 보존해야만 한다.

노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요인은 과도한 신진대사에서 오는 부담, 반응성산소물(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 체세포 이변(Somatic cell mutation)과 당류결합(glycation) 거대분자의 형성 등이다.

ROS나 glycation은 DNA·단백질·지질 같은 거대분자에 결합돼 활성을 억제해 생리기능을 줄이고 손상된 분자가 교체되지 못하고 대사기능에 장애를 준다. ROS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완전연소를 못해 유독물을 만드는 것 같이 세포에서 에너지 물질인 ATP의 합성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며 정상적으로 이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몸 안에 있어 무독물질로 변화시키지만 완전한 해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산화억제 물질인 vitamin C·E를 써서 ROS의 작용을 예방한다.혈액의 당류 특히 포도당도 농도가 높아지면 거대분자에 결합돼 비슷한 작용을 한다.따라서 고혈당을 피하는 것도 노화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상보다 낮은 혈당도 피해야 한다.

신진대사와 관계는 칼로리 섭취제한으로 쥐의 수명이 연장되고 암 발생률이 줄어드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화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음식물섭취 조절을 하면 인슐린, IGH-1 같은 내분비물질이 줄어들고 동시에 혈당과 중성지방이 감소되며 Apoptosis(세포자살 사멸)의 감소, 산화질소와 DHEA(안드로스테론의 하나인 호르몬) 합성의 증가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생리작용을 볼 수 있다.

항노화의 현재와 미래

방사선이나 자외선 같은 물리적 노출, 화학물질의 작용 등으로 혹은 ROS로 오는 DNA의 손상이 체세포 변이를 유도한다. 이런 변이는 세포 소멸이나 세포기능을 저하시켜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노출없이 자연적인 변이가 올 수도 있다. 특히 DNA 복사효소의 충실도(fidelity)가 떨어졌을 경우 변이의 빈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장수하는 집안이나 조로하는 가계가 생긴다.



미국내에서 최장수자로 기록돼 있는 Charlie Smith의 1976년 135세 때 모습이다. 그는 라이베리아 출생으로 1854년 미 뉴올리언스로 이주해서 살아오다 197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노화(抗老化)는 노화 예방, 더 정확히 표현하면 노화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과제와 이미 일어난 노화를 이전상태로 되돌리는 회복 과제를 포함한다.

현재까지는 성과가 예방이 주가 된 것은 노화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줄이거나 작용을 억제시키는 대사물질을 섭취하므로써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이미 일어난 노화를 회복시키는 문제는 아직도 시작 단계나 앞으로 많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과제가 본질적으로 같은 바탕에서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진 만큼 예방문제의 해결은 회복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노화예방에 100가지가 넘는 각종 제제가 시판되고 있으나 근본은 음식물 섭취 제한(Caloric restriction)과 항산화물질(산화억제물질, Antioxidant)의 사용으로 요약된다.

세포안의 생리기능에 손상주는 대사물질 혹은 지나친 대사 부담으로 생기는 이상대사 산물, 예를 들면 ROS의 생성억제 목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혹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적포도주 성분의 하나로 알려진 Resveratrol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미 생성된 ROS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는 항산화물질인 비타민 E·C·coenzymeQ10·lipoic acid 같은 것이 사용된다.

그밖에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대사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예가

생리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비타민, 지방산과 그 밖의 지질, 광물질 같은 것이다.

현재 수명이 짧은 선형충·파리·생쥐같은 동물에서 생존율의 연장이 관찰되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항노화 물질을 찾는 연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직 임상시험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의 관심이 큰 물질로 면역억제 항생제의 하나인 Rapamycin과 동식물에서 추출된 물질들이 있다.

노화와 직접 연관된 질병의 치료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노화로 저하된 생리기능 회복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노화는 신진대사의 이상으로 세포의 기능적 구조적 손상이 오고 이 단계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인 병리적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화로 오는 질병의 회복은 노화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에 직결되지 않더라도 생리기능의 손실이 양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적지 않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지나면 난소기능이 떨어 여성호르몬 결핍이 생기는 것을 위시해 노년기가 되면 성장호르몬·남성호르몬·DHEA, 그 밖의 여러 내분비물질의 결핍이 생긴다.

이런 물질들은 혈액에서 비교적 쉽게 측정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 측정이 어려운 대사물질들이 노화로 결핍상태가 되며 이의 보충으로 노화 진행이 감소될 뿐 아니라 결핍으로 오는 노화증상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13페이지에 계속>

기 고

급증하는 노령화 사회

김홍묵(문리)

동물의 세계에서 사냥 능력과 생식기능이 사라진 뒤에도 제 수명대로 사는 것은 인간 밖에 없다고 한다.

무리지어 사는 짐승들이 많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답게 문명을 향유하고 도덕으로 공동생활의 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덕분에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해 장수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다. 한국은 21세기 초입인 2000년 7월 1일부터 노령인구지수 7.1%의 고령화사회가 됐다.

2020년부터 고령사회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0년 경에는 13%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도 오래지 않아 다가올 것이다. <도표 참조>

굳이 통계나 추계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엔 지팡이(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가 넘쳐나고 있다. 문상을 가보면 미수(米壽) 줄수(卒壽)를 넘긴 이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

2009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75.74세, 여자는 82.36세다.

반면 기대 수명은 45세 기준 남자 32.6세, 여자는 38.6세로 평균 수명보다 2년 정도 길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100세 수명 가능성도 헛된 가설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받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 수명은 남자 67.4세, 여자 69.6세로 평균 11년은 병고에 시달리며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문제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질병은 백내장, 다음으로 암·골절·뇌졸중·심장질환·척추질환·폐렴·무릎관절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담석증 순이라고 한다. 거기에 다 치매까지 겹치면 가족 간의 갈등과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 중에도 노인 자살 증가율이 높아 20년 사이 61세 이상 노인 자살이 5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노인 자살자 수가 1989년 788명에서 2008년에는 4천29명이나 됐다.

자살 원인은 질병이 37.1%로 가장 많고 경제적 어려움(33.9%), 외로움과 고독(13.2%), 가정불화(10.6%)가 뒤를 이었다.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2~3배나 높다. 아프고 돈 없고 의롭고 소외당하는 노인이 많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래서 고령에도 일차

리를 찾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관리 실버사원 채용 현장에는 2천명 뽑는 데 2만명이 몰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자녀를 늦게 낳아 20대 아들과 딸을 둔 전직 공무원 출신 B씨(73), 복지회관 도시락 배달 일을 하다 다른 노인들보다 사정이 좀 낫다는 이유로 밀려난 S씨(71), 면접을 위해 한껏 화장을 했다는 A할머니(68),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 50만원을 받는 자리도 이토록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 졸업도 미루고, 취업도 안 되고, 독신주의나 만혼 현상으로 부모에게만 기대는 켄거루족 자녀들, 대학원까지는 책임져야 하고, 집 한 칸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결혼을 해도 무한정 애프터 서비스해야 한다는 풍토 때문에 노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그런데도 자녀들 집에서 함께 살며 봉양받을 생각은 버려야 하는 노인들, 월남전에서 피를, 중증에서 비지땀을 흘리고도 정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밀려난 전후세대들은 노후대책이 마련된 경우가 열 명에 한 명 정도라고 한다. 살기도 힘들고, 죽기도 힘든 시대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예일대·하버드대는 나은편 하와이대·동경대는 서글퍼

‘사는 게 켄’라고 푸념을 하면서도 인간이기에 욕심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눈이 침침하면 덜 보고, 귀가 어두우면 덜 듣고, 이가 빠지면 덜 먹고, 기억이 흐리면 다변과 고집은 버리는 게 천리인 듯한데 안정, 보전기, 틀니 모두 갖추지 않을 수 없다. 별이 시원찮

은 자녀들에게는 그것도 큰 부담이다.

다녀야 할 노인 대학도 많다. 예일대(예전 일판 생각하며 고집대로 사는 노인)·하버드대(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노인)·동아대(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려 지내는 노인)는 그런대로 나은 편이다. 하와이대(하루 종일 와이프 뒷바라지만 하는 노인)·동경대(동네 경로당 다니는 노인)에서 방콕대(방에만 콕 처박혀 지내는 노인)로 떨어지면 서글퍼지고 자살 충동도 생긴다고 한다.

우리 고대 설화에 ‘기로(棄老)전설’이 있다. 70이 된 노인을 아들이 지계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 할 때, 함께 갔던 손자가 그 지계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아버지가 그 까닭을 물었다.

손자는 아버지가 70이 되면 이 지계에 실어 버리겠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깊이 깨닫고 다시 노부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 지성으로 공양했다고 한다.

사실(史實)에는 없지만 그 이후로 생산력이 없는 늙은이를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나라 상감님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고 했다. 서양에서도 ‘노인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영국)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그리스)는 동경로사상이 있었다.

하지만 충효를 최고의 가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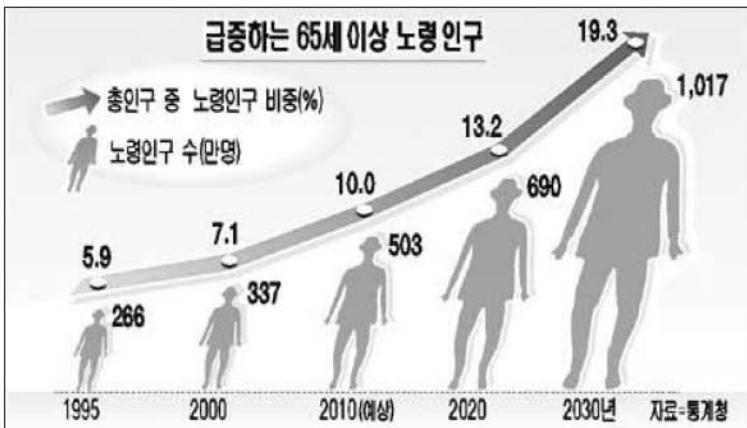


되들려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 한 마디쯤은 곱씹어 볼 만 하다.

“인간은 이상을 상실하기 때문에 늙는다. 연령과 함께 피부에는 주름살이 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엔 주름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자유칼럼 그룹 www.freecolumn.co.kr과 연우포럼의 김홍묵 동문의 글을 옮겨 온 것임.

<필자 약력> 서울대 사회학과 졸. 동아일보 기자, 대구방송 이사 24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이후 (주)청구사무이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주)화진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인의 약속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룬 ‘한국인 진단’이 있다.



<2페이지에서 계속>

인체 산염기균형(Acid-base balance) 변조에서 회복이 75세가 되면 30세 때의 20%로 줄어드는데 이 때 대표적 증상은 피로회복이 늦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노화회복 문제가 체계적으로 연구돼 노화로 오는 질병치료를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로 고혈압증을 혈압저하제로 치료하거나 성인 당뇨병을 혈당저하제로 치료하는 등 대증요법에서 근본 병변에서의 회복으로 해결하자는 생각 같은 것이다.

항노화 Nutraceuticals

항노화 제제 대부분은 식품으로 사용되는 동식물에서 분리한 물질이 많으며 식품이 아니

라도 안정성이 입증된 자연에서 얻은 물질이나 자연물질과 같은 합성물로 이 식품영양제를 Nutraceuticals(영양제제)라 해 의약품으로 쓰이는 합성 물질이 추가 되는 Pharmaceuticals(약리제제)와 구별한다.

식품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라도 약리작용하는 미량의 비 대사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나 대사물질이라도 섭취용량이 지나칠 때는 안정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식품섭취로 Caloric Restriction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뿐 아니라 통상 용량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식품 그대로 보다는 유효성분의 분리를 해 이런 문제를 피해야 한다.

비타민 B12가 역사적으로 좋은 예의 하나다. 악성 빈혈증

치료에 소의 생간이 유효하다는 대단한 발견을 했지만 매일 몇 파운드의 생간을 먹어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대량의 간 조직섭취는 몸에 해가 된다. 그러나 생간에서 악성 빈혈증 치료성분이 찾아졌기에 비타민 B12가 발견됐다.

사람의 항노화 대사물질을 찾는 데는 식물보다는 동물에 장점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동물일수록 유효성이 뛰어난 동물성 물질을 찾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안정성도 월등하다. 그러나 함량이 극히 소량이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나 효능이 입증된 경우도 유효 용량을 충족시키는데 실용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종의 음식물 그대로 섭취해 항노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0서 식품이 직접 원료가 돼 제조하거나 이를 근거로 다른 자연물질에서 찾아내거나 더 효과적이고 안정성있는 유도체를 부분합성한 물질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끝내는 말

인체는 200조의 세포로 돼 있으나 줄기세포로부터 지속적인 새 세포의 공급을 받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화세포는 노화로 생리기능이 감퇴되거나 소멸돼도 새 세포로 교체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존 분화세포를 노화에서 보호해 생리기능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노화의 주 원인은 신진대사의 불균형, ROS(reactive oxygen species)생성, 과잉혈당 혹은

외적의 물리적 화학적 인자에 노출돼 세포구성 단백질·핵산·지질 혹은 이들로 구성된 구성체가 손상돼 병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방지의 원칙은 이런 조건을 최소한도로 줄이거나 손상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식물 조절과 항산화물질과 노화로 감소되거나 결핍된 대사물질을 섭취해야 한다.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노화로부터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제제는 대사물질이거나 이와 극히 가까운 물질 즉 식품, 특히 사람과 가까운 동물식품에서 찾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고침>지난 4월호 4페이지 기사중 ‘김기훈 동문’은 ‘이기훈 동문’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기 고

글쓰기 & 예일대 여름계절학기 소감



김창수 CPA, MBA
(약대 64, 경영대학원 68)

제미 동포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은 현지 동포신문이나 동창회보, 교회보 등에 자신의 글을 게재할 기회가 많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한글의 우수성이 접목돼, 우리 동포들은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글을 영어로 출판하는 동포들도 많이 늘어났다.

고국에서 10여년간, 그리고 미국에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문 지상에 계속 글을 올렸던 필자도 몇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 문체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의 바른 글을 쓰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일임을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해외에서 글을 잘 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게 됐다. 특히 미국의 우리 동포들이 한글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커피나 버터 냄새나는 글을 지양하고, 김치나 된장 냄새나는 우리 글로 문장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 쓰이지 않는 영어식 파동형 동사나 미국식 표현을 한글 문장 속에 넣으면, 영문을 번역한 것처럼 보여 우리 글의 맛이 없어진다. 설사 글의 소재나 정보의 원천이 영문으로 돼 있어 이를 참고로 한다 해도,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후 고유한 우리말로 글을 써야 우리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글 문장 속에 영자 스펠링이 많이 나오거나, 영어 단어나 약자가 아무런 뜻풀이 없이 파 구 쓰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말의 70%에 달하는 한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 한자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것이 글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국어사전과 함께 옥편도 옆에 두고 참고해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문장의 기초가 안돼 있는 수준에서 글을 발표하면 안된다. 문장의 기초가 안돼 있는 글을 양산하면, 이는 지면공해에 속한다.

해외에선 고국에 비해 1인당 글을 올릴 수 있는 지면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한국 같으면 일간지에 글을 게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낮은 수준의 동포들이 현지 일간지나 기타 지면에 글을 올리거나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것이, 해외 동포사회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글의 구성과 전개에 관한 기교는 고사하고 기초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일부 동포들이 이를 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수준미달의 글을 쓰게 되고, 필진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언론 매체에 이러한 글이 게재되기도 한다.

한 문장에 쓸 데 없이 주어가 여러 번 나오는 글,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글, 문장과 문단을 구별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줄

문, 구두점(句讀占) 사용이 서툰 글 등을 보게 되는 것은, 문장의 기초도 모르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 2차 책임은 이러한 글을 게재하는 언론매체에 있다고 봐야 한다.

셋째, 문장은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쉽게 써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가늠할 수 없는 글, 억지로 어렵게 쓴 글 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써야 한다.

글은 쓰는 사람이 자기민족을 위해, 또는 자기 혼자 읽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에게 글의 내용을 완전히 전달하는 데 원래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글은 우선 논리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읽어서 이해가 돼야 한다. 전문서적 읽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힘이 들면 안 된다.

특히 현대와 같은 속도 사회에서 가능하면 문장은 짧을수록 이해하기 쉬워진다. 문장을 더 짧게 할 수 없으면, 구두점을 활용해서라도 독자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장이 짧고 논리적인 글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선 읽기가 쉽고 한번만 읽어도 이해가 잘 된다.

넷째, 말을 글로 기술한 것이 문장이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구어체(口語體)를 많이 쓰면 안된다.

소설 속의 대화 같은 것은 물론 구어체로 기술해야 되지만, 그 외의 글에 구어체가 이유없이 등장하면 품격이 떨어진다. 글 속에 구어체가 많이 들어가면, 시장이나 미장원에서 손님들이 잡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확률이 많다.

다섯째, 미국에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이민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이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갈 길이 먼 이민 근로자를 의식하지 않고 창가에 한가롭게 앉아서 차 마시며 하는 호강스런 얘기, 본인의 생각만 옳고 고상한 척 하는 얘기, 옛날 추억만 들추는 얘기, 너무 비관적인 얘기, 객관성 없이 이웃이나 단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방하는 얘기, 극단적으로 치우친 종교적 얘기, 자기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거명하며 자랑하는 얘기, 고국의 정치현실에 국한된 얘기, 이민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비생산적 얘기 등을 화제로 삼아 글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할 부문이다.

이민사회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살림에 직접 도움되는 얘기,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는 얘기, 위생과 건강에 유익한 얘기, 문화적으로 미국사회와 융화하는데 도움되는 얘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에 대한 얘기 등을 주제로 하면, 독자들과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고, 이민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해외, 특히 미국에서 좋은 글을 쓰는 요령 내지 자세에 대해 한 이민자의 입장에서 소견을 피력했다. 근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요령’에 대해 국문학자 노대규 교수가 16년 전 쓴 훌륭한 글이 있어, 이를 발췌해 소개함으로써 필자의 단견(短見)을 보완하고자 한다.

글을 잘 쓰려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

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전문적으로 수사학이나 작문의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글을 잘 쓰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한다면, 글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글을 잘 쓰려면, 먼저 남의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글을 많이 읽게 되면 어휘수가 증대되고, 쓸거리가 마련되며, 글의 구성방법과 전개방법도 저절로 배우게 된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휘력 빈혈증에 걸려 독서 능력도 떨어지고 표현력도 부족해진다. 독서가 가끔씩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 매일 밥을 먹듯이 하는 일상적 습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의 글을 많이 읽으면, 그 내용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머리 속에 저장된 그 글의 내용들은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쓸거리, 곧 글감 또는 재료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남의 글을 많이 읽으면, 글의 구성 방법과 전개 방법을 저절로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과 전개가 훌륭하게 이뤄져 있는 글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글의 구성과 전개가 잘 이뤄져 있는 글들을 선택해 읽음으로써,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데 도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미문(美文)이나 명문(名文)을 쓰려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문필가처럼 멋있게 잘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미문이나 명문 작성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사실, 문제에 대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쓰되, 다만 형식과 단락의 구분을 갖추고 구성 방법과 전개 방법을 논리적으로 잘 지켜 써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말하듯이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 서적과 같이 내용을 어렵게 써야만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가치 있는 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용을 쉽게 쓰면 깊이가 없고, 무게도 없으며, 가치도 없는 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용을 어렵게 쓴 글이 좋은 글이고 쉽게 쓴 글이 나쁜 글로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글은 어렵게 쓰기가 쉽고, 쉽게 쓰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넷째로, 글쓰기의 이론에 따라 많이 써 보아야 한다. 운동 선수가 코치의 이론적 실기 지도를 받으며 부단히 많은 연습을 통해 기능이 향상되는 것처럼 작문 이론을 배워 나가면서, 글쓰기 연습을 남보다 많이 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남보다 많이 글을 써 보아야 한다는 말은, 먼저 글을 쓴 다음 그 글을 다시 고쳐 쓰고 얼마 후 고친 글을 또다시 고쳐 쓰는 노력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반복적 노력이 없이는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남의 글을 많이 읽고, 미문이나 명문을 쓰고자 하는 의식을 버리고, 말하듯이 쉽게 쓰도록 노력하면서, 글 쓰기 이론에 따라 많이 써보면 보다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예일대 여름 계절학기 참가 소감

선배님들덕에 평생의 소중한 경험

조경미(사회과학대 심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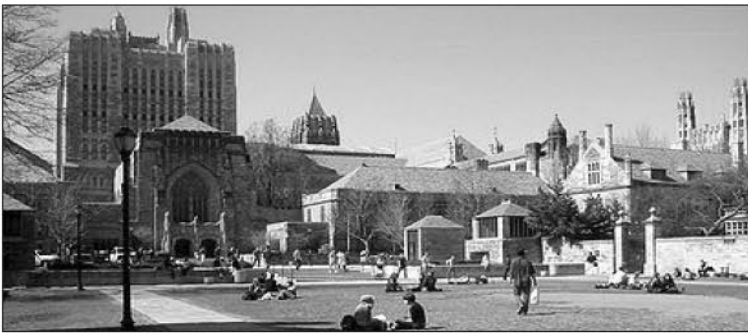
지난 해 처음 이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교묘시절부터 해외유학이 꿈이었고 유학한 친구들과 SAT공부를 하며 ‘나도 충분히 아이비 리그에 진학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 까맣게 잊고 있던 차였다.

계절학기(2학점)중 하나는 전공인 Abnormal Psychology, 하나는 교양수업으로 정했다. 그런데 전공은 정신병리에 관한 것이라 원어로 된 약 이름을 암기하는 데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이 분야는 사람의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학문으로 병과 증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작업이 아주 어려웠다.

백한 수업과정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바로 전공생들의 태도였다. 교수님께서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한국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곳 학생들은 ‘이곳은 왜 이런 것이냐’는 등 수없는 질문으로 한 슬라이

드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나는 한국친구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지. 왜 시간을 지체하게 해’라고 콧속말로 주고받곤 했다.

그러나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 학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예일대 학생들의 이해수준



이 나보다 훨씬 깊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깨닫는 데 무려 2주일이 걸렸지만 그 이후는 자신있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학생들과 영어로 토론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갔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전공과목 수업에는 3번의 시험 외에도 7장짜리 레포트 과제가 두건이나 있었는데 이 레포트의 개요를 짜는 일이 너

무 힘들어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친절하게 나의 생각을 물어보시며 많은 제안을 해주셨다.

교양과목으로는 미술사를 들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기초강의를 들었던 수업이라 그림들은 아주 익숙했다.

하지만 그림을 대하는 교수님의 접근법은 아주 달라서 흥미있게 들었다. 한국에서의 수업은 그림을 보고 화가에 대한 약력을 소개하고 그림의 주제, 특징적인 기법을 교수님께서

이야기 해주시던 그것을 받아 적고 외우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목의 Nolta교수님은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고 항상 학생들에게 “뭐가 보이냐” “무엇을 그런 것 같으냐”고 질문을 하셨다. 한국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호지부지 넘어갔겠지만 이곳 학생들은 늘 각자 생각하는 바를 말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화가의 제보와 그림의 장치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또한 예일대 갤러리에서 조각상 하나를 보고 그것을 다른 시대의 스타일로 바꾸는 과제

도 아주 새롭고 흥미로웠다.

종강 일주일 전 뉴욕 Metropolitan Museum of Art로 단체 견학가서 교수님과 함께 그림을 보고 소감을 나눴던 시간들이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계절학기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아주 친절

한 분들이 많아 항상 누군가 나타나 잘 도와주었고 학생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학교에서 주말마다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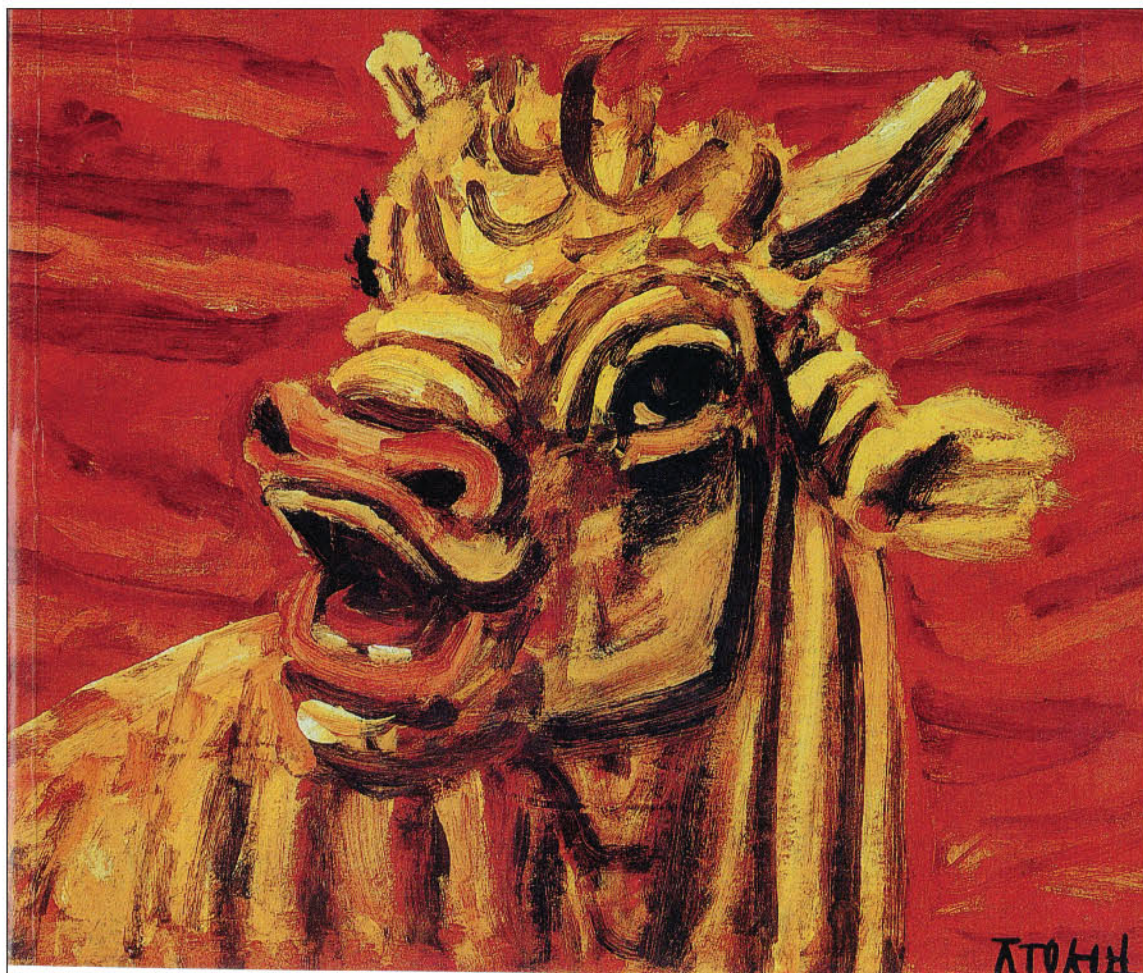
특히 예일대에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이들과 교류는 나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줄기에 충분했다.

비록 6주 동안의 짧은 계절학기 생활이었지만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평생 잊지 못할 이 경험이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의 장학금으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소중히 알고 있다. 선배님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경험이 앞으로 내 꿈을 실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세계명화 감상<3>

이중섭과 그의 작품들



황 소(1953 유화 32cm x 49.5 cm)

한국 연대 미술의 전설적 존재 피카소·마티스 견줄 천재적 작품남겨

임이섭(미대 54)

20세기 중반 현대 미술에서 스페인에는 피카소, 프랑스에는 마티스가 자랑스러웠다면 한국에는 이중섭(1916~1956·사진)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며 전설같은 천재 미술가다.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 참혹했던 한국인의 운명을 같이 고통받으며 작품활동을 했던 현대 미술가다.

20세기 전반 유럽으로부터 밀려든 현대미술을 1940년대 일본에 유학중이던 그는 먼저 소화하고 터득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강력한 개성을 발휘해 한국 현대미술의 거목이 됐다. 그러나 생활고와 영양실조로 40세에 비참하게 운명하고 말았다(병원에서 그가 죽은 뒤 며칠을 방치됐다.)

그는 당시 미술재료를 살 돈이

↓세사람(연필드로잉 18x 28cm)



없어 담배 온갖 포장지에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한 그의 작품들은 최근 천문학적인 값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도 소장돼 있다.

이중섭은 가장 뛰어난 한국 민족 예술가로 불리며 1990년대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큰 영예를 베풀었다. 그는 미술의 표현에서 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됨이 한국인의 훌륭한 표상이 되기도 했다.

황소(1953)

소는 그에게는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상징하는 향토적인 주제로 그는 그리고 또 그렸다.

이 작품은 한국인의 강인한 투지와 6.25 당시 우리 민족의 분노를 대담한 필치와 붉은 색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명작이다.

깨물고 있는 눈과 함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6.25 전쟁 때 한국인의 감정 표현이 넘쳐

→ 흰 소(1954 유화 30 x 42cm)



호르고 있다.

흰 소(1954)

소는 말 없이 일만 하는 순한 동물이다. 하지만 그가 분노하



↑ 두 아이와 물고기와 게(수채화 26 x 19cm)

여 전진하고 있다. 흰 색깔의 붓질에서 6.25 당시 백의민족 한국인의 기백과 돌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두운 배경도 전쟁 당시의 적막한 사회를 상징했으며, 그 붓질은 한국의 서예미술의 진미면서 미국의 Action Painting을 뽐내고 있다.

세 사람

일제 말기 2차대전이 격화돼 앞길이 막막할 때 한민족의 고뇌와 불안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인의 바지 지고 리를 입은 세 사람이 서로 대조되는 몸매로 방바닥에 누워 극히 창작적이면서 독창적 감정의 표현을 능숙하게 그려냈다. 그러면서도 세 사람은 서로 연

관돼 원을 그려 하나가 되고, 한민족의 한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다.

두 아이와 물고기와 게

이중섭은 2차 대전 말기 일본 유학중 일본 여인과 사랑에 빠져 해방 직전 원산에서 결혼하고 6.25 때 두 아이와 같이 제주도 피난갔으나 생활고로 부인과 아이를 일본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항상 그림의 소재로 아이들을 그렸다. 우울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물가에서 즐겁게 노는 장면을 현대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기법으로 비참하게 그려낸 이 작품에는 물고기와 게와 함께 하나가 되는 환희를 밝게 보여 주고 있다.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남기주 동창회 골프대회

5월1일 LA 북부 샌타클라리타의 로빈슨 랜치 골프클럽에서 동문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춘계 골프 토너먼트를 열었다. 화창한 날씨에 즐거운 라운딩을 마친 참석자들은 클럽하우스에서 뷔페식 양식으로 저녁 식사후 일부는 한인타운 노래방으로 옮겨 친목을 다졌다. 이날 메달리스트엔 남자부

에선 경이적 이븐파를 기록한 김영진(공대 82) 동문이, 여자부에선 오홍조 동문 부인이 차지했다. Mrs. 오는 이날 베스트 드레서 상까지 거머쥐어 기쁨을 더 했다. 지정 핸디캡을 적용하지 않고 랜덤 홀 성적으로 핸디캡을 조정하는 캘러웨이 방식으로 채점한 결과 이원영 동문(정치

81), 노명호 동문 부인이 각각 챔피언을 차지했다.

근접상은 이상실 동문(간호 88), 장타상은 강준현 동문(공대 69)가 각각 차지했다.

김은총 동창회장은 “많은 분들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 주어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홍선례>

동문의 이색 독도사랑

차량 홍보배너에 앞장
늘 재미와 교훈을 주는 중후

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아크로외의 논객 김문엽 동문(조경 83)이 언론의 주목



을 받고 있다. 그의 독창적이고 뜻깊은 아이디어가 최근 일간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이다.

김문엽 동문(영어명 조슈아 김)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자동차 뒷유리창 전체를 독도 홍보 배너로 장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문엽 동문은 차를 타고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독도 홍보사절’이 되어 독도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Acropolistimes>

←김문엽 동문이 자신의 승용차 옆에서 범상치 않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 동문의 이같은 사진은 한국일보 등에 게재됐다.

위스컨신 주립대 심상희 동문

노벨상 수상자 서명상 수상

위스컨신 주립대 심상희 동문이 화학분야 학자 세계최대 모임 ACS(American Chemical Society)가 수여하는 ‘노벨상 수상자 서명상(Nobel Laureate Signature Award)’을 1월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CS는 16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화학자 협회로 전 세계 화학자와 화학 엔지니어를 아우르는 비영리단체다.

화학분야 박사학위자의 학위과정중 연구업적에 수여되는 이 상은 탁월한 연구성적을 이룬 학생과 지도교수 모두에게 각각 3천달러의 상금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들의 서명이 적힌 상패를 수여한다.

지난 1978년 설립돼 1980년부터 학생과 지도교수 모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상희 동문과 지도교수 마틴 자니 교수는 이차원 적외선 분광학 기술에 있어 혁신적인 연구성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심 동문은 박사과정 중 다차원 스펙트럼 추출방법 개선을

위한 주요 기술을 개발했다. 예로 분자진동 관찰의 중요파장인 증적외선을 위한 펄스 성형기를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 추출에 보다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기존에 기존 방법보다 아밀로이드 단백질 형성과정이 10~100배 정도 빠르게 진행시키는 연구 기술을 개선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알츠하이머·파우병·당뇨병 등의 질병과 관련돼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동문은 모교 화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이수한 뒤 위스컨신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하버드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지도교수인 자니 교수는 로체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니 교수도 2001년 학위이수중 ‘노벨상 수상자 서명상’을 받아 학생이자 교수로 이 상을 받은 첫번째 수상자가 됐다.

↓심상희 동문(왼쪽)이 자니 교수와 함께 상패를 보이고 있다



이원택 동문 '문학예술' 통해 중단

“그 때 그 여치였던가”

노인정신과 전문의로 본 동창회보에도 자주 글을 기고해오고 있는 이원택 동문(의대 65·사진)이 ‘문학예술’ 2010년 봄호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등단작은 ‘그 때 그 여



치였던가’와 ‘어머니 마음’이다.

이 동문은 지난 2007년부터 만화경’과 ‘요지경’ 외에 ‘무아경’ 등 매년 한 권씩의 수필집을 출판해 그동안 세 권의 작품을 출판해오고 있다.

이 동문은 특유의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 그리고 유머감각의 이야기가 돋보이고 있는 소설적 터치를 구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류계열 심사위원은 이 동문의 작품에 대해 “탄탄한 문장이 먼저 눈에 띈다…대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동문은 미 웨스턴대학 임상 부교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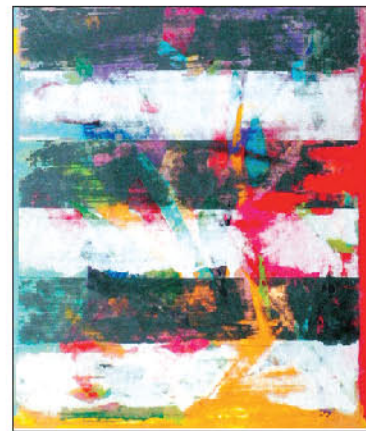
정동현·김윤진 동문 2인전

LA 리앤리 갤러리서

정동현·김윤진 동문이 5월 1-21일 LA 리앤리 갤러리에서 2인전을 열었다.

정 동현 동문은 한지에 색동의 색채를 입힌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정 동문은 모교 미대를 졸업한



뒤 패사디나 아트 센터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다.

또한 도예가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3회의 개인전과 35회의 그룹전을 가진 바 있다.

김윤진 동문은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주제로 한 연작을 출품했다.

김 동문은 모교 미대와 대학원



졸업후 하트포트 아트 스쿨에서 공부했으며 7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오랫동안 카탈리나 섬이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작업창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동문은 “카탈리나 섬의 모양과 색깔이 늘 다양하게 변해오고 있다. 때로는 산이나 암초, 삼각형, 또는 원으로 보이기도 하고 화면 한 가운데 홀로 일 때도 있다. 여러 봉우리가 사이좋게 모이기도 한다. 선명할 때도 있고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의 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2인전 출품작 중 왼쪽이 정동현 동문의 ‘색동의 길’이고 오른쪽이 김윤진 동문의 ‘카탈리나 섬’이다.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동정

박찬민 동문 딸 조앤 박 양

헌법경연대회 챔피언 전인차

학교팀 CA대표중 일원

박찬민 동문의 딸 조앤 박(한국명 박정원)양이 큰 일을 해냈다. Arcadia High School 졸업반인 박 양이 활약한 이 학교 토론팀(30명)이 헌법 경연대회인 '위 더 피플' 최종전에서 전국 챔피언에 오른 것이다. 아카데미아 고교는 지난 1993년에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고 한다.

이 대회는 헌법관련 지식을 묻는 경연대회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National Finals'로 지난 4월 24~27일 나홀에 걸쳐 버지니아주 앨링턴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토론 대회다. 올해가 23회로 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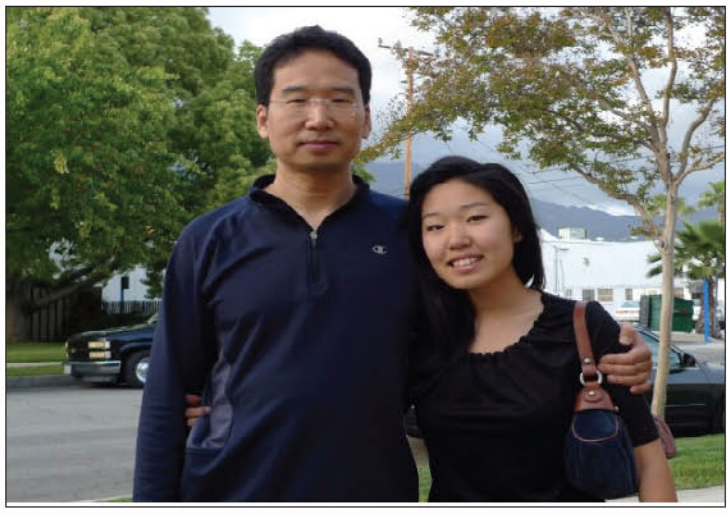
역에서 각 주를 대표한 52개팀이 참가했다.

각 팀마다 6개 유닛으로 나눠 미국의 헌법을 주제로 전직 판사와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헌법의 의미와 배경, 존재가치, 권리 등에 대해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양은 29명의 팀 멤버들과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준비에 들어가 아카데미아 시 의회를 비롯한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매주 20시간의 고강도 훈련을 해온 끝에 팀은 올 2월 CA주 대회에서 우승하며 주 대표자격을 얻은데 이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다.

<Acropolistimes.com>

박찬민 동문과 조앤 박양 부녀가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대법관 김용담 동문

‘한국 재산상속세’법률포럼

FGS커뮤니티 센터서

FGS 코리아커뮤니티센터(회장 마계은)가 최근에 동문 김용담(사진) 전 대법관과 차주홍 변호사를 초청한 제5회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한국과 미국의

상속법’을 주제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한국의 재산 상속 및 미국재산 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초빙된 김용담 전 대법관은 서울고와 모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70년 제 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3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해인 2009년 은퇴했다.

대한민국 법관 중 37년 동안의 최장 근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은퇴한 뒤 곧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법률학 분야에서 연수 중이다.



델러스 동창회 골프대회

텍사스(달라스) 지역 동창회가 지난 지난 4월 10일 토요일 Carrollton에 위치한 Indian Creek Golf course 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지난 해부터 4인 스크램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게임 방식은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공을 선택해 계속 진행하는 형식이다.

2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5개 조중 3조의 이준(공대 73)·윤귀현(공대 77)·강성호(수의대 81)·김희경(농대 88)·백상준(사범대/원 92) 조가 63타(72타 기준)를 쳐 9인더파의 성적으로 1등을 차지했다.

<이석호·차기회장>

서울대 병원 LA사무소 총 책임자 애니스 박

모교의료기술인식제고에 전력

세계적 수준의 진료·교육·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은 글로벌 의료산업의 육성과 국제화에 발 맞춰 2008년 LA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1천여명의 미주동포들이 편리하고 빠른 일정으로 서울대 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LA Office는 2009년 건강검진을 비롯, 뇌종양·뇌동맥류·갑상선암·폐암·백내장·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진료연계로 치료 후 환자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현지 의료인과 연계 시스템 구축을 다지고 있다.

또한 미국 거주 환자들의 진료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민영보험회사·메디컬 에이전시와 협약 체결 및 공동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최고 교육병원으로서 한국의료진국제화를 위해 미국 유명 대학병원들과 교류를 통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현지법인 총책임자로 애니스 박(박

순결·간호대 99년졸·사진) 간호사가 새로 합류해 앞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애니스 박 간호사는 모교 졸업 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간호사로 내과·심장과·신생아중환자실 등에서 임상경험을 쌓았으며 2003년 서울대 병원 강남 건강검진센터 개원시 국제 상담팀으로 국제의료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됐다.

애니스 박 간호사는 미국과 한국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미주 동포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소개하며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LA Office>

3699 Wilshire Blvd Suite 124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85-8510, (323)798-7042

<동문 혜택>

모교 동창회원 및 배우자, 회원의 직계 존비속 증명서류 준비시,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종합 건강진단비를 10% 감면해주고 있다.



의대 동창회 아이티 성금

의과대학 미주 총동창회(회장 이성춘·오른쪽)가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라 본보에 아이티 성금 2천 달러를 전달했다.

동창회는 뉴욕의 셀터에도 2천 달러를 기부했다. 전달식후 이 회장과 박진국 총무가 기념촬영을 했다.<중앙일보 인용>



우순자 동문 리치먼드서 개인전

리치먼드대 교수인 우순자 동문이 리치먼드에서 지난 1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비

롯, 아크릴릭 및 오일 페인팅 근작 10점으로 9회째 개인 작품전을 열었다.

제임스 홍 동문 신임행정장 선임

전 퍼스트 스탠다드(FS) 제일

은행 전무인 제임스 홍(56) 동문이 오히나 퍼시픽 은행장에 선임됐다.

제임스 홍 신임행정장은 모교 졸업 뒤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Mt.Storm King 등정

하산후 와인 파티로 하루 만끽

뉴욕 동창회가 지난 4월24일 Storm King Mountain 등산 피크닉을 가졌다.

총 65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등산 피크닉은 난이도에 따라

High/Low의 2개조로 등정, 정상에서 점심식사 후 하산해서 피크닉 와인파티를 벌였다.

날씨가 봄날로는 더없이 화창한 가운데 피크닉 Area에서의 조출한 파티로 동문들은 오랫동안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윤병하 총무>

8명에 장학금 시상식

휴스턴(남서부)동창회

지난 4월 2010년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장학금은 Leadership, Academic을 비롯해 8개 부문 8명에 각 1천달러씩 수여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선공학계 동문들이 Science & Engineering 장학금을 신선했다.

박홍우 회장(공대 76)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줄 바란다.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자”고 말했다.

장학위원장 김영렬 동문은 “SAT 2400점 만점자가 탈락하

는 등 어느해보다 수준높은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이날 차기 장학 위원장에 박소영 동문(음대)이 선임됐다.

이번 장학금 수상자(아래 사진)는 다음과 같다.

▶박철민(Computer Science, UT-Austin) ▶박기동(Biology, UT-Austin) ▶이현우(Stratford High School) ▶앤드루 윌슨(Cheical Eng-Pre-med, Rice) ▶유지현(Biology, UT-San Antonio) ▶이호준(Physics, UT-Austin) ▶옥솔(Architecture, Pratt Institute) ▶김선(Bioengineering, Rice)



한인사회연구원장 이윤모 동문 포럼 개최

의보개혁과 안인사외과제

시카고 한인사회연구원장 이윤모 동문(사회학 박사)이 5월15일 ‘의료보험 개혁과 한인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시카고 한인사회 복지회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 동문은 연방 통계청이 지난 2008년 지역사회를 통해 수집한 의료보험 가입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시카고 및 주변지역은 물론 미주 전역 우리 동포들의 의료보험 가입현황을 설명했다.

이 동문에 따르면 미주 동포 중 4분의 1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로 의료개혁 후에도 여전히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처지라는 것. 또 이 동문은 민간보험(고용주 제공, 자기부담 보험)과 정부보험(메

디케어·메디케어)에 관해 우리 동포들은 타민족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노스웨스턴대 교수 손민웅 박사가 아시안 및 한인 당뇨병 실태를 밝히고 동포 지역사회단체들의 대응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포럼에서는 김준희 디렉터와 박지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2000년·2009년 시카고 한인 복지회 무료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문제점들을 밝혔다.

↓이윤모 동문이 시카고 일리노이 지역을 비롯한 미 전역 한인 동포 의료보험 가입자 및 무보험자들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참가 명복을 빕니다

▶김정국(사대 50) 4월4일 별세(5907 Holland Rd. Rockville MD 20851. Tel 301-

294-3551

▶배진재(공대 54) 장모상(옥금례 권사) 5월4일 Chicago Illinois



세종문화회 회장 김호범 동문

영문시조쓰기워크샵 열어

“하룻밤 안동시내의 골목 술집 구경하고/ 머리가 뻥뻥돌고 발독길을 걸을 때/ 도야지 울음소리에 이에 왔노, 하노라” 시카고 ‘세종문화회(회장 김호범 상대69·사진)’가 주최한 ‘영문시조쓰기 가르치기 워크샵’에서 하버드대 David McCann교수가 읊은 시조다.

시카고 동창회가 2004년 창립해 지원해오고 있는 세종문화회가 지난 4월9-10일 하버드대 한국연구소 소장 David McCann교수를 초빙해 미 고교 교사들을 위한 영어로 시조쓰기 가르치기 워크샵과, 일반인을 위한 시조 강좌, 시조그림, 시조 낭송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들은 한국 KBS의 뉴욕 특파원 한창록 PD가 취재, 4월14일 KBS-2TV로 한국 전역에 2차례 방영됐다.

방송은 “우리 전통 시조는 국내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미국인들의 영어 시조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몇년 전부터 영어 시조짓기를 벌이고 있는 사람



들이 있는데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시조를 가르치고 싶어 워크샵에 참석했다는 영어 교사들과 세종문화회 활동을 소개했다.

다음은 영어 시조 중 하나다. How lovely/ this spruce tree/ its limbs laden/ with virgin snow the bloodred/ on a robin's breast/ the skyblue/ of a mountain jay for such wonder/ what wise man/ would not know/ his Creator?

세종문화회는 미 문화내에 한국문화 요소들이 자리잡기를 목적으로 ‘세종 음악경연대회’와 ‘세종 작문경연대회(수필과 시조부문)’를 매년 개최하

David McCann교수(오른쪽 가운데)가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조에 대해 해설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고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를 2차례, 한국의 음율이 들어간 연주곡 작곡경연대회로 전세계의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마감한 제5회 세종 작문경연대회에는 1천100여명의 중고교생들이 미국 37개주에서 응모했다. 이 경연대회를 e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한 게시 외에도 50개 주 2만1천600명의 영어 교사들에서 지난 1월 우편으로 발송했다.

세종문화회는 봉사자들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후원, 일반 기부, Corporate support, grant등으로 운영되며, 사무총장 박종회 동문(의대 69), 초대회장 전현일 동문(농대 62)과 현 회장 김호범 동문, 임이섭(미대 54)동문, 황치용(문리 65)동문, 김병윤(문리 65)동문 등 이사와 임원이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의 세종문화회 활동과 정보는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고국 동문 동정

수상 · 인사 · 행사

수상

▲김성기(법학59~63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지난 4월 23일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박수문(화학 60~64 울산과학기술대 석좌교수)=5월 10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서 제19회 수당상(기초과학부문)수상.

▲주양자(대학원66졸 보건복지부 전 장관)=4월17일 한독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제1회 한독 여의사 지도자상 수상.

▲장명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4월 23일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이명걸(약학64~68 모교 약학과 교수)=5월10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19회 수당상(응용과학부문) 수상.

▲이호인(응용 화학 66~70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4월 21일 제43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훈장인 석에서 최고 창조장 수훈.

▲박세일(법학 66~70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4월 13일 사단법인 4월회로부터 제10회 4·19문화상 수상.

▲노태돈(사학67~71 모교 국사학과 교수·규장각원장)=4월 13일 月峰 韓基岳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제35회 월봉저작상 수상.

▲이승규(의학67~73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4월 25일 제5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 특별공로상 수상.

▲조수철(의학 67~73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4월 15일 환인제약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12회 환인정신의학회(학술상) 수상.

▲유봉(공업 화학 73~77 KAIST 특훈교수)=6월 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호

암재단으로부터 제20회 호암상(과학상) 수상.

▲송세안(화학75~79 삼성종합기술원 연구마스터)=4월 21일 제4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정상옥(수학75~82 미국 럿거스대 석좌교수)=최근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로부터 제임스 맥그리디상 수상.

▲권동일(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4월 22일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제30회 POSCO 학술상 수상.

▲성장모(금속공학 75~79 효성 사장)=4월21일 제4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차형준(화학공학86~90 포스텍 교수)=4월 16일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기술연구상 수상.

▲이은정(미생물87~91 KBS 기자)=4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제27회 최은희여기자상 수상.

▲신재원(의학94~99 MBC 의학전문기자)=4월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독심자가 공동 수여하는 제32회 독심자 언론문화상(방송사 의료부문) 수상.

▲한승수(행정대원 63졸 전 국무총리)=4월19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비영리 공익재단

인 벤스필드재단 이사에 선임.

▲이장무(기계공학63~67 모교 총장)=지난 4월 13일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제2대 이사장에 추대.

▲김영석(경제60~66 전 우석대 총장)=4월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선임.

▲김종진(기계공학64~7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4월 14일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아시

아지역 이사장에 선출.

▲김종섭(사회사업66~70 삼익악기/스페코그룹 회장·본회 부회장)=4월 27일 순수 민간 해외자원 봉사기관인 사단법인

코피온(COPION) 제3대 회장에 취임.

▲김철수(의학70~77 인하대 병원 암센터 소장)=최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회장에 취임.

▲이창구(경제73~77 인천광역시 전 행정부시장)=4월 21일 인천발전연구원 제11대 원장 취임.

▲김원호(독문74~80 월간조선 전 사장·본보는 실워)=4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본부장에 선임.

▲이남식(농학74~78 전주대 총장·한국사립대학협의회 부회장)=4월15일 임기 4년의 전주대 제11대 총장에 취임.

▲채희수(AMP 66기 두산산업개발 부사장·텍스콘 대표)=4월 14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제9대 회장에 선출.

▲손석기(AIP 41기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4월8일 (주)일심로하스건강 대표에 취임.

▲이성균(기악52~57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오는 5월 22일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喜壽기념 '사랑이 담긴 작은 음악회' 개최.

▲강신표(사회55~59 인제대 명예교수)=4월 9일부터 2주 동안 카자흐스탄 국립대 '국제석학교수 초청' 프로그램에서 강연.

▲안명환(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는 실워

가천의대 이길녀 동문

가천의대(재단회장 이길녀·의학 51~57, 경원대 총장·사진) 김병원 뇌건강센터가 세계 처음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획득했다.또 뇌과학 연구소가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7.0 Tesla MRI Brain Atlas'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총장은 최근 인하대와 경인일보가 조사한 인천 파워오피니언 'BIG 3' 중 1인에 선정됐다. 경원대는 전국 최

원)=4월20일 서울 돈보스코청 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 진행.소셜미디어 '위키토리(wik-itree)'에 개인미디어 개설.

▲구본술(응용미술60~66 미대 동창회 부회장)=4월 13~19일 서울미술관에서 작품전 개최. 5월 31일~6월 5일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개최.

▲유동준(잠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晶月 나혜석 기념사업회장)=4월 24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晶月 탄생 1백4주년 기념 나혜석 바로 알기 심포지엄 개최.

▲안동일(법학59~63 홍익법무법인 변호사)=4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4·19'(에지

刊) 증보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4·19문화상' 기금으로 기부.

▲곽명선(교육66~70 경인여대 학장·한국교육학회 부회장)=4월 24일 한국교원대에서 '한국 교육의 이슈와 현 정부 리더십'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유한태(응용미술67~71 숙명여대 교수·대극 박물관 건립위원장)=4월 19~23일 숙명여대 빛 갤러리에 '마음의 무지개' 포스터 전시회 개최.

▲이정진(의학70~76 서울아산병원장)=4월15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공동으로 제3회 아산-임페리얼 심포지엄 개최.

▲정태수(농업교육 81~89 강원도 강릉초빙교수)=4월 25일 강원도 인제문화원에

초·로 '학생 건강 장학금'을 신설해 전교생 무료

김진을 실시중이다. 이 총장은 지난 1989년 김병원에서 태어난 4쌍둥이의 대학 학비까지 부담한 뒤 김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서 '두루미의 비상' 출판기념회 개최.

▲정윤(자원공학76~80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4월 24~2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10 가족과학 축제' 개최.

▲김세희(기약90~94 서울장신대 교수)=5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임버홀서 모차르트, 쇼팽,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정의순(AMP 4기 극동포럼 이사장)=4월 9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한승수 전 국무총리 초청,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포럼 개최.

▲안호원(HPM 6기 부천대 객원 교수·법무부 범죄예방위원)=4월 14일 시화 작품 23점을 영월교도소에 기증.

▶하권의 부회장(의학57~63)=지난 4월 25일 본 동창회 하권의 부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한국 스포츠 의학을 개척했다. 국립 경찰병원 진료부장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장,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대한스포츠의학회장, 대한외상학회, 외대동창회장,특히 2~3대 삼성서울병원장,서울보훈병원장 등을 지냈다.

▶하진수(경성고상39졸 전한일은행장)=4월 24일 별세(93세)

▶박종기(경제52~56 전 덴마크 대사)=4월 22일 별세(77세)

▶권희준(중문56~61 한민족통일협회장)=4월13일 별세(74세)

▶주은선(물리58~63 경상대 전 학장)=4월24일 별세(72세)

▶이용걸(대학원75 교육학과 전교수)=4월12일 별세(87세)

▶이덕희(사회교육60~64 동원중전교장)=4월24일 별세(68세)

▶조효선(치의학70~76)=4월 5일 별세(60세)

▶최익한(ACAD 5기 동국대 전교수)=4월 24일 별세(81세)

참가 명부를 받습니다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동창회비 2009~2010년도

Alaska
배석연 (농대 58)
윤제중 (농대 55)

Alabama
유성무 (상대 66)
진창건 (의대 55)

Arizona
김동호 (농대 58)
김영철 (공대 55)
박양세 (약대 48)
신태성 (공대 71)
유기석 (문리대61)
지영환 (의대 59)
진명규 (공대 70)
최윤근 ()

California
강경수 (법대 58)
강길용 (공대 46)
강신호 (사대 49)
강윤희 (간호대72)
강정훈 (미대 56)
강중경 (공대 48)
강천호 (사대 58)
강홍재 ()
강희창 (의대 57)
고석규 (치대 67)
고영철 (의대 45)
고용규 (의대 67)
고재천 (공대 57)
곽한석 (상대 46)
구무옥 (문리대55)
구해선 (미대 81)
권기상 (경대원72)
권길상 (음대 45)
권대원 (경대원59)
권영달 (문리대50)
권영덕 (공대 54)
권영재 (의대 57)
권영조 (의대 57)
권오형 (사대 61)
권처균 (공대 51)
권태삼 (수의대73)
김건진 (문리대62)
김경신 (사대 70)
김경화 (간호대69)
김재윤 (의대 57)
김광은 (음대 56)
김광철 (음대 59)
김광한 (농대 63)
김교복 (농대 63)
김근빈 (법대 56)
김기덕 (사회과대)
김기수 (공대 74)
김기태 (의대 52)

김낙구 (상대 67)
김동산 (법대 59)
김동석 (음대 64)
김범수 (문리대61)
김병삼 (공대 52)
김병현 (공대 68)
김병호 (상대 57)
김상엽 (공대 57)
김석두 (농대 58)
김석홍 (법대 59)
김선기 (법대 59)
김세담 (법대 55)
김수백 (치대 49)
김순길 (법대 54)
김순자 (치대 57)
김승현 (의대 75)
김영기 (의대 54)
김영덕 (법대 58)
김영배 (미대)
김영상 (법대 57)
김영석 (문리대54)
김영석 (상대 62)
김영옥 (간호대69)
김영춘 (수의대64)
김영한 (법대 54)
김영희 (생과대69)
김용선
김용수 (경영대74)
김용채
김원경 (약대 59)
김원탁 (공대 65)
김유갑 (약대 51)
김은희 ()
김익창 (의대 49)
김일영 (의대 65)
김재무 (상대 58)
김재영 (농대 62)
김재중 (치대 62)
김정복 (사대 55)
김정빈 (공대 66)
김정애 (간호대69)
김정화 (미대 63)
김종일 (상대)
김종표 (법대 58)
김주려 (법대 48)
김준일 (공대 62)
김지익 (의대 45)
김진호 (약대 64)
김창무 (음대 50)
김태웅 (의대 57)
김태윤 (법대 53)
김한평 (치대 65)
김현철 (의대 57)
김현호 (문리대59)
김혜숙 (미대 68)
김 훈 (경영대74)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석 (의대 66)
나승옥 (문리대59)
남창우 (사대 56)
노명호 (공대 61)
노상규 (공대 60)
노재민 ()
노종근 (문리대53)
문병권 (상대 47)
문병길 (문리대61)
문병하 (법대 51)
문인일 (공대 51)
문정현 (약대 54)
민병곤 ()
민병환 (약대 68)
민영기 (치대 61)
박 현 (상대 68)
박경호 (사대 53)
박경화 (문리대46)
박국중 (법대 57)
박동훈 ()
박민식 (수의대65)
박성민 (의대 58)
박영옥 (사대 55)
박우섭 (상대 77)
박원준 (공대 53)
박의순 (상대 53)
박임하 (치대 56)
박제인 (약대 60)
박종성 (법대 53)
박종수 (수의대58)
박종식 (의대 48)
박진득 (농대 67)
박찬호 (자연대81)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형철 (사대 72)
방명진 (공대 73)
방정자 (간호대61)
배효식 ()
백산옥 (간호대77)
백성용 (사대 52)
백승호 (치대 55)
백옥자 (음대 71)
변영근 (수의대52)
부영무 (치대 70)
서광일 (상대)
서승열 (공대 59)
서정하 (공대 55)
서치원 (공대 69)
선우원근 (공대66)
성락호 (치대 63)
성주정 (상대 68)
손남수 (미대 60)
손창순 (공대 69)
손학식 (공대 61)

손혜정 (수의대)
송은섭 (치대 69)
송정자 (의대 67)
송준섭 (농대 65)
송원표 (수의대73)
신광재 (공대 73)
신대식 (상대 60)
신동국 (수의대76)
신동희 (공대 78)
신영규 (의대 57)
신영수 (상대 70)
신용규 (문리대61)
신우식 (치대 62)
신우천 (치대 67)
신정수 (간호대54)
신정연 (미대 61)
신한경 (약대)
신희정 (미대 73)
심상은 (상대 54)
안백영 (공대 75)
안병일 (의대 63)
안현중 (음대 58)
양광주 (문리대58)
양명규 (의대 55)
양승문 (공대 65)
양은식 (음대 70)
양은혁 (상대 56)
양창수 (상대 54)
양태준 (상대 56)
염동해 (농대 74)
오정숙 (간호대54)
오재환 (공대 64)
오명주 (간호대77)
오상하 (간호대60)
오인근 (약대 59)
오찬수 (약대 57)
우옥자 (간호대60)
원미량 (미대 65)
유석홍 (치대 61)
유의영 (문리대56)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창호 (약대 74)
유현순 (간호대69)
이혜란 (미대)
이호진 (간호대74)
이흥표 (의대 58)
이화숙 (간호대67)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승쾌 (문리대66)
임용오 (의대 57)
임정란 (음대 76)
임진자 (미대 60)
임진한 (치대 68)
임치민 ()
임춘수 (의대 57)
임화식 (치대 59)
임희영 (치대 69)
장 준 (인문대85)
장정규 (미대 67)

이동녕 (문리대46)
이동섭 (사대 36)
이동성 (의대 51)
이명규 (미대 73)
이명희 (간호대67)
이방기 (농대 59)
이범모 (치대 74)
이범식 (공대 61)
이범무 (치대 70)
이상문 (의대 52)
이 선 (의대 42)
이선희 (사대 53)
이성웅 (음대 58)
이승재 (상대 67)
이승훈 (상대 74)
이양구 (상대 57)
이영송 (치대 63)
이영식 (농대 58)
이영신 (간호대77)
이영일 (문리대53)
이우근 (음대 46)
이원백 (의대 65)
이은희 (의대 48)
이의덕 (신문대원70)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정열 (간호대68)
이정옥 (생활대71)
이정화 (공대 52)
이종걸 (상대53)
이종표 (간호대69)
이준식 (의대 61)
이준호 (상대 65)
이종열 (공대 69)
이체진 (문리대)
이청 (농대 61)
이충남 (농대 61)
이탁성 (공대 56)
이태로 (법대 50)
이필권 (보대원65)
이학태 (의대 59)
이혜영 (공대 56)
이현홍 (법대 50)
이혜란 (미대)
이호진 (간호대74)
이흥표 (의대 58)
이화숙 (간호대67)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승쾌 (문리대66)
임용오 (의대 57)
임정란 (음대 76)
임진자 (미대 60)
임진한 (치대 68)
임치민 ()
임춘수 (의대 57)
임화식 (치대 59)
임희영 (치대 69)
장 준 (인문대85)
장정규 (미대 67)

장기열 (치대 55)
장기창 (공대 56)
장기화 (치대 57)
장동석 (문리대66)
장인숙 (간호대70)
장재찬 (의대 61)
장진성 (약대 66)
전낙관 (사대 60)
전병련 (공대 54)
전성대 (사대 60)
전호선 (수의대67)
전화자 (음대 60)
전희택 (의대 58)
정규남 (공대 52)
정동구 (공대 57)
정동식 (공대 57)
정두호 (공대 64)
정문용 (상대 54)
정복근 (사대 69)
정수만 (의대 66)
정원훈 (상대 38)
정인민 (보대원64)
정인환 (법대 54)
정재형 (약대 55)
정재훈 (공대 64)
정진수 (공대 56)
정창희 (법대 54)
정태무 (사대 44)
정현진 (간호대68)
정황 (공대 64)
제영해 (생활대71)
조동준 (의대 57)
조만연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성운 (법대 46)
조제길 (사대 61)
조종웅 (공대 45)
조태목 (사대 60)
조태준 (문리대59)
주수봉 (공대 67)
주영희 (보전대원61)
지인수 (상대 57)
진성호 (공대 66)
진희섭 (문리대50)
차기민 (공대 85)
차종환 (사대 54)
채희원 ()
최정복 (간호대69)
최경자 (약대 63)
최덕순 (간호대59)
최동욱 (의대 59)
최복영 (사대 56)
최승륜 (상대 53)
최영순 (간호대69)
최왕욱 (공대 69)
최용환 (공대 57)
최인용 (문리대65)
최재윤 (문리대54)
최준호 (치대 58)
최중환 (치대 70)

최대근 (법대 48)
최홍수 (자연대87)
탁은숙 (문리대54)
탁혜숙 (음대 67)
하기환 (공대 66)
하상원 (대학원90)
한종철 (치대 62)
한태호 (인문대75)
한혜순 (간호대70)
한효동 (공대 58)
허영진 (문리대61)
현원영 (사대 45)
홍병익 (공대 68)
홍종화 (약대 74)
홍진 (간호대56)
홍현우 (문리대57)
황동하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황석우 (의대 53)
황정식 (사대 54)

Georgia
계광무 (공대 63)
김만복 (문리대72)
김서영 (문리대68)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용건 (문리대48)
김용자 (사대 60)
김종구 (수의대73)
문종현 ()
박천기 (법대 56)
안승덕 (상대 51)
오경호 (농대 60)
임수암 (공대 62)
임한용 (공대 60)
정경근 (농대 59)
정양수 (의대 60)
정인태 (의대 58)
최우백 (공대 76)

Hawaii
김승태 (의대 57)
김용진 (공대 50)
팀양수 (사대 62)
박장부 (의대 61)
유재호 (문리대57)
윤상철 (약대 47)
전영표 (문리대55)

Colorado
송요준 (의대 64)
이척호 (공대 66)
정화용 (사대 61)
표한승 (치대 58)

Connecticut
김기훈 (상대 52)
김내도 (공대 62)
라관국 (의대 58)

Delaware
문내옥 (의대 67)
배성호 (의대 65)
이재성 (공대 70)

Florida
김정권 (의대 58)
문상규 (의대 56)
박창익 (농대 64)
신쌍재 (수의대59)
안창현 (의대 55)
양찬기 (의대 57)
엄무광 (문리대60)
오석일 (의대 64)
윤홍철 (의대 56)
이정필 (의대 58)
이종오 (의대 58)
전영자 (미대 58)
전용상 (공대 46)
정구영 (의대 50)
정진목 (의대 51)
한기민 (공대 52)
한성수 (의대 54)
한용현 (의대 44)
황현상 (의대 55)

Illinois
강수상 (의대 47)
강영국 (수의대67)
강창만 (의대 58)
강화영 (문리대50)
계훈택 (의대 55)
고병철 (법대 55)
곽영로 (수의대72)
구경희 (의대 59)
권호연 (문리대57)
김갑중 (의대 57)
김광철 (사대 47)
김길중 (의대 59)
김병윤 (문리대65)
김사직 (상대 59)
김상기 (문리대56)
김선철 (의대 58)
김영호 (의대 71)
김용성 (상대 54)
김용우 (공대 58)
김용주 (공대 73)
김윤범 (의대 54)
김윤하 (공대 66)
김일훈 (의대 51)
김재환 (사대 72)
김정수 (문리대69)
김정주 (문리대60)
김종규
김준우 (의대 76)
김현옥 (문리대67)
김현주 (문리대61)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 \$75

2010. 7. 1.- 2011. 6. 30.

☐ \$75

관의 후원금

\$200	\$200+	\$500	\$1,000
☐	☐	☐	☐

종신 여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원기금]	지부 분담금
☐ \$3,000	☐	☐

성명:(한글) (영문) 작성일: 년 월 일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Card Holder Name:

Card: Visa ☐ Master Card ☐

Card No.: Security Code: Exp. Date:

Signature: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노영일 (의대 62)	임영신 (의대 54)	김국화 (공대 56)	김영철 (의대 55)	김광호 (의대 66)	이영애 (치대 52)	김영자 (간호대 53)	박민자 (사대 58)
문명훈 (사대 47)	하상태 (의대 57)	김용호 (약대 69)	김옥현 (의대 59)	김동옥 (법대 55)	이영애 (농대 59)	성성모 (사대 67)	박석규 (간호대 59)
문조훈 (약대 62)	한상호 (의대 56)	김우신 (의대 60)	김은섭 (의대 53)	김동진 (약대 56)	이정복 (공대 58)	이은설 (문리대 53)	박영규 (사대 66)
문탁영 (문리대 55)	한원종 (수의대 83)	김원정 (의대 69)	김자익 (의대 69)	김명승 (상대 65)	이정은 (의대 58)	최근영 (법대 63)	신달수 (공대 59)
박 숙 (의대 64)		김정일 (의대 57)	김정빈 (약대 54)	김명희 (미대 68)	이주경 (상대 68)	최동근 (문리대 50)	유금용 (법대 50)
박소녀 (치대 89)	Iowa	남상용 (공대 52)	김중석 (문리대 55)	김문경 (의대 61)	이준행 (공대 48)	한영준 (사대 60)	유길선 (농대 73)
박영규 (농대 57)	서탄길 (의대 61)	남성희 (의대 58)	김태호 (약대 63)	김병숙 (보대원 64)	이해청 (약대 62)		유세만 (공대 59)
박인숙 (미대 69)		박준환 (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병술 (약대 52)	이현호 (공대 58)	Pennsylvania	유황 (농대 56)
반용균 (의대 53)	Kansas	서영일 (의대 61)	김훈일 (공대 60)	김석식 (의대 58)	이희경 (의대 55)	강영배 (농대 59)	이규진 (약대 60)
배영집 (의대 54)	구명순 (간호대 66)	오동환 (의대 65)	김희국 (약대 54)	김석자 (음대 61)	이희자 (간호대 70)	강준철 (사대 59)	이길영 (문리대 59)
백운기 (문리대 56)	배규영 (사대 68)	유효명 (의대 58)	라국진 (공대 47)	김성진 (공대 56)	임건식 (음대 54)	고병은 (문리대 55)	이진현 (의대 69)
서상현 (의대 65)	임하진 (의대 79)	육태식 (의대 61)	류제은 (미대 71)	김세중 (공대 50)	임공세 (의대 61)	김국간 (치대 64)	이희덕 (농대 68)
소진문 (치대 58)		이민우 (의대 61)	박진이 (공대 60)	김승호 (공대 71)	임대목 (의대 58)	김영남 (의대 61)	임재숙
송원희 (미대 60)	Louisiana	이상일 (의대 54)	박경원 (미대 66)	김영배 (공대 78)	장기선 (약대 61)	김영우 (공대 55)	전중희 (공대 56)
송재현 (의대 46)	장영빈 (문리대 58)	이성길 (의대 65)	박대규 (사대 55)	김용술 (상대 56)	장영식 (법대 59)	김용국 (의대 58)	정철률 (의대 55)
신석균 (문리대 54)		이영모 (의대 53)	박성일 (상대 58)	김용연 (문리대 63)	장영자 (간호대 68)	김운옥 (간호대 76)	조시호 (문리대 59)
안은식 (문리대 55)	Massachusetts	이종기 (농대 55)	박성호 (공대 57)	김용학 (법대 70)	전병삼 (약대 54)	김재술 (약대 58)	조진태 (문리대 57)
양선희 (음대 59)	김문소 (수의대 61)	이한중 (의대 59)	박은규 (약대 72)	김우영 (상대 60)	전성진 (사대 58)	김주진 (법대 54)	진기주 (상대 60)
양승표 (문리대 57)	김병국 (공대 71)	장 철 (의대 65)	박익수 (사대 52)	김은태 (의대 46)	정인식 (상대 58)	남영선 (공대)	최관일 (공대 54)
양홍미 (약대 63)	김영길 (사대 59)	장병호 (의대 66)	박진우 (상대 77)	김제경 (농대 58)	정진선 (간호대 82)	민홍식 (수의대 60)	최귀복 (공대 72)
오기창 (법대 50)	김은한 (의대 60)	정성순 (음대 68)	박태호 (상대 76)	김정순 (법대 53)	정택수 (문리대 46)	박영한 (약대 68)	최성호 (문리대 58)
오명자 (간호대 60)	김재호 (상대 56)	조병권 (공대 64)	매병애 (간호대 47)	김정희 (간호대 69)	조남천 (사대 59)	변국환 (공대 75)	최용천 (의대 53)
왕진한 (공대 59)	김재호 (농대 61)	차대양 (공대 55)	사정웅 (약대 63)	김중원 (사대 58)	조대영 (공대 61)	서준민 (공대 64)	탁순덕 (사대 57)
윤석한 (치대 58)	도운희 (농대 61)	채무원 (의대 59)	선우문혜 (약대 60)	김중을 (사대 51)	조숙자 (간호대 59)	손재옥 (가정대 77)	황의찬 (사대 76)
윤효경 (사대 87)	민길우 (문리대 61)	최공창 (의대 55)	선우치민 (약대 54)	김진승 (문리대 53)	조종수 (공대 64)	송영두 (의대 56)	
이광선 (의대 59)	박기순 (간호대 70)	하계현 (공대 64)	성옥경 (간호대 70)	김창수 (약대 64)	조태환 ()	신선자 (사대 60)	Utah
이덕수 (문리대 58)	박종건 (의대 56)		손갑수 (약대 59)	김태옥 (공대 55)	조황환 (치대 65)	실영섭 (공대 74)	김성환 (문리대 59)
이동균 (공대 75)	신상철 (공대 74)	Minnesota	손광호 (의대 59)	김태식 (상대 65)	진봉일 (공대 50)	심완섭 (의대 67)	김인기 (문리대 58)
이병희 (상대 52)	안효태 (문리대 65)	권학주 (치대 59)	손완배 (농대 70)	김해암 (의대 58)	차국만 (상대 56)	양운택 (의대 58)	배유한 (공대 73)
이소희 (의대 61)	윤상대 (수의대 62)	김권식 (공대 61)	송기인 (의대 60)	김현수 (자연대 53)	천병수 (공대 70)	염극용 (의대 54)	정석화
이소희 (간호대 68)	윤영자 (미대 60)	김영남 (사대 53)	송영익 (농대 60)	김현중 (공대 63)	최구진 (약대 54)	오진석 (치대 56)	
이승자 (사대 60)	윤은상 (상대 66)	김태환 (의대 58)	송철섭 (공대 48)	김형관 (약대 54)	최석진 (사대 54)	유영길 (의대 70)	Virginia
이승훈 (공대 66)	이금하 (문리대 69)	남세현 (공대 67)	신두식 (의대 52)	남상래 (간호대 66)	최수용 (상대 55)	윤원길 (의대 59)	고무환 (법대 57)
이시영 (상대 46)	이은주 (음대 73)	박상빈	양문석 (상대 54)	노용민 (의대 49)	최영혜 (간호대 64)	윤경나 (음대 57)	곽근영 (사대 51)
이영우 (문리대 66)	이의인 (공대 68)	배병철 (문리대 65)	양성택	라홍채 (공대 62)	최일단 (미대 55)	이규호 (공대 56)	김광배 (공대 49)
이영철 (공대 64)	이재용 (의대 93)	변우진 (인문대 81)	오용호 (의대 66)	문소자 (음대 60)	최태식 (의대 69)	이만택 (의대 52)	김기봉 (공대 63)
이윤락 (공대 48)	이희규 (공대 69)	성육진 (치대 87)	유재룡 (공대 58)	민발식 (의대 60)	최한용 (농대 58)	이병인 (수의대 69)	김세양 (공대 62)
이윤모 (농대 57)		송창원 (문리대 53)	유호근 (문리대 71)	박고자 (음대 61)	최형무 (법대 69)	이봉재 (공대 95)	김재동 (문리대 70)
이정일 (농대 57)	Maryland	왕규현 (의대 56)	윤갑식 (공대 53)	박상원 (문리대 54)	한경수 (문리대 57)	이성숙 (생활대 74)	남광순 (음대 64)
이진주 (문리대 55)	강경구 (사대 49)	주한수 (수의대 62)	윤순철 (사대 44)	박수안 (의대 59)	한승신 (의대 70)	이수경 ()	남춘일 (사대 69)
이춘우 (치대 54)	강길종 (약대 69)	Missouri	윤준식 (법대 58)	박순영 (법대 56)	한승원 (미대 60)	이영재 (상대 58)	문성길 (의대 63)
임근식 (문리대 56)	강창욱 (의대 55)	김승희 (법대 55)	윤현남 ()	박정식 (사대 59)	한영수 (의대 61)	이지춘 (미대)	박정훈 (상대 55)
임이섭 (미대 54)	공순옥 (간호대 66)		이정림 (상대 64)	박찬영 (약대)	한용진 (미대 55)	이혜원 (의대 55)	박엽 (사회과대 80)
임현제 (의대 59)	곽 홍 (의대 45)	Mississippi	이경태 (상대 64)	박현성 (약대 60)	한용호 (법대 48)	장성환 (의대 55)	박용걸 (약대 56)
장기남 (문리대 62)	권철수 (의대 68)	김진호 (의대 60)	이능석 (의대 57)	배상규 (약대 61)	한호 ()	전무식 (수의대 61)	박윤수 (문리대 48)
장시경 (약대 58)	김 철 (의대 62)	N.Carolina	이명재 (상대 54)	배운자 (간호대 64)	함종금 (간호대 66)	전망남 (상대 73)	박일영 (문리대 59)
장윤일 (공대 60)	김명자 (법대 52)	마동일 (의대 57)	이분휘 (문리대 54)	서경애 (음대 67)	허병렬 (사대 42)	전희곤 (의대 54)	박필일 (농대 69)
장은숙 (문리대 53)	김병오 (의대 63)	이석형 (사대 56)	이유찬 (의대 58)	서기병 (상대 55)	홍선경 (의대 58)	정영자 (치대 63)	박형준 (의대 54)
전현일 (농대 62)	김승태 (문리대 66)	이석현 (의대 68)	이재덕 (법대 60)	서상철 (의대 49)	황봉하 (수의대 76)	정용남 (문리대 60)	백순 (법대 58)
정 호 (공대 62)	김중호 (약대 68)	전길표 (음대 64)	이재원 (법대 60)	서영숙 (의대 67)	황성현 (공대 56)	정태광 (공대 74)	변만식 (사대 49)
정광준 (공대 60)	김창호 (법대 56)	조동림 (의대 52)	이전구 (농대 60)	전우진영 (의대 63)	황용규 (의대 66)	정홍택 (상대 61)	서휘열 (의대 55)
정병욱 (의대 53)	김희용 (약대 74)	최종진 (의대 63)	이종석 (상대 57)	성기호 (약대 57)		제갈은 (문리대 59)	신용계 (의대 62)
정승규 (공대 60)	남옥현 (경영대 84)	최화진 (음대 85)	이태형 (문리대 62)	송영선 (사대 60)		조성권 (공대 86)	안병협 (공대 58)
정영숙 (사대 59)	노광욱 (치대 39)	한광수 (의대 57)	이훈영 (상대 61)	신남철 ()		조영일 (공대 68)	안태민 (공대 62)
정지희 (문리대 59)	도상철 (의대 63)	홍 훈 (문리대 75)	장대옥 (음대 57)	신(차)의정 (음대 55)		조영호 (음대 56)	오원섭 (수의대 53)
제환수 (사대 65)	박명영 (의대 68)		정순기 (문리대 69)	안재현 (상대 62)		주기복 (수의대 68)	유홍열 (문리대 74)
조 철 (공대 49)	박관효 (약대 67)	Nebraska	정준영 (문리대 67)	안태홍 (상대 65)			윤개일 (약대 60)
조대현 (공대 57)	석균범 (문리대 61)	김명자 (문리대 62)	조정현 (수의대 58)	양거영 (의대 49)			이내원 (사대 58)
조중행 (의대 63)	소숙영 (간호대 64)	오대요 (의대 56)	주선후 (음대 54)	양근자 (미대 69)			이승희 (음대 55)
조형원 (약대 50)	송병준 (약대 68)	이상문 (상대 57)	최영태 (문리대 67)	양명자 (사대 63)			이연구 (미대 60)
지예자 (미대 65)	신구용 (공대 59)		최원로 (의대 42)	양세관 (경대원 66)			이영목 (공대 59)
진관보 (의대 72)	신상균 (의대 52)	New Jersey	최준희 (의대 58)	오인환 (의대 67)			이윤주 (상대 63)
진보린 (약대 56)	안창호 (약대 70)	강석권 (법대 61)	최희용 (문리대 61)	우상영 (상대 55)			이형모 (의대 45)
천양곡 (의대 63)	오인환 (문리대 63)	고순정 (간호대 69)	추재옥 (의대 57)	유광현 (의대 58)			정계훈 (문리대 55)
최경화 (간호대 54)	오혜현 (약대 55)	고애자 (사대 58)	탁병양 (약대 50)	유무영 (공대 66)			정원자 (농대 62)
최길용 (문리대 57)	유덕영 (공대 57)	고영수 (미대 57)	한인섭 (약대)	유재섭 (공대 65)			최규식 (상대 64)
최순분 (간호대 57)	이영수 (공대 59)	곽상준 (약대 55)	한태진 (의대 58)	유정자 (간호대 63)			최동원 (문리대 50)
최순용 (문리대 61)	이유세 (사대 72)	곽선섭 (공대 61)	허선행 (의대 58)	유진일 (의대 60)			최완열 (상대 56)
최애옥 (간호대 47)	이재승 (의대 55)	권문웅 (미대 61)	현건섭 (공대 55)	윤병남 (사대 62)			최준호 (공대 60)
최의필 (의대 53)	이준영 (치대 74)	권오근 (상대 58)	홍사만 (문리대 61)	윤병하 (농대 80)			한희생 (수의대 60)
최혜숙 (의대 53)	이태영 (법대 60)	기도철 (공대 67)		윤영섭 (의대 57)			
최호승 (사대 58)	이향열 (법대 57)	김경애 (간호대 55)	Nevada	윤인숙 (간호대 63)			
최희수 (문리대 67)	임종식 (의대 51)	김기우 (치대 49)	김택수 (의대 57)	윤정옥 (약대 50)			
한의일 (공대 62)	임필순 (의대 54)	김대언 (의대 59)	이관 (공대 55)	이국진 (사대 51)			
한재은 (의대 59)	장효강 (공대 66)	김동진 (사대 67)	이순환 (의대 53)	이규용 (의대 37)			
함성택 (문리대 55)	전경철 (공대 55)	김명철 (공대 60)	이학은 (약대 57)	이근수 (상대 64)			
황치룡 (문리대 65)	정요셉 (사대 70)	김봉희 (공대 69)	최영식 (법대 59)	이대연 (약대 65)			
홍혜배 (사대 72)	조세진 (의대 65)	김세환 (공대 65)		이대영 (문리대 64)			
	홍영식 (공대 58)	김수일 (약대 60)	New York	이배용			
Indiana		김양호 (의대 51)	강영선 (공대 50)	이병무 (법대 57)			
곽일성 (의대 60)	Maine	김연석 (상대 54)	강중무 (사대 60)	이성구 (약대 56)			
김연화 (음대 68)	채도경 (의대 59)	김영애 (사대 56)	계동희 (치대 67)	이성기 (간호대 72)			
김정숙 (약대 51)		김영일 (약대 58)	곽승용 (의대 65)	이성수 (공대 56)			
박연희 (간호대 61)	Michigan	김영진 (문리대 50)	권영대 (공대 69)	이영숙 (간호대 56)			
송순영 (문리대 52)	강태수 (의대 65)		금영천 (약대 72)				
이종일 (의대 65)	권순관 (공대 60)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송 준 (공대 55)	유성열 (공대 72)	이종성 (의대 58)	최준한 (농대 58)	Wisconsin	장홍 (문리대61)	West Virginia
송애라 (음대 75)	이경희 (약대 82)	이창렬 ()	홍계인 (음대 60)	김영화(문리대65)	장세곤 (의대 57)	김홍락(문리대52)
신창범 (법대 73)	이대원 (사대 58)	전병택 (상대 65)	황제규 (공대 54)	이기억(문리대46)	전장호 (공대 55)	정약훈 (의대 47)
양용관(수의대62)	이순모 (공대 63)	최경수 (사대 52)		이영균 (의대 61)		

동창회비 2010~2011년도

Alaska 윤제중 (농대 55)	김은희(치대 46)	임진자 (미대 60)	Georgia 김용건(문리대48)	Indiana 한원중(수의대83)	곽선섭 (공대 61)	라홍채 (공대 62)	이성숙(생과대74)
Alabama 유성무 (상대 66)	김익창 (의대 49)	임진한 (치대 68)	최우백 (공대 76)	곽일섭 (의대 60)	김정빈 (약대 54)	박고자 (음대 61)	이혜원 (의대 55)
Arizona 지영환 (의대 59)	김정빈 (공대 66)	임준수 (의대 57)	Hawaii 김승태 (의대 57)	Maryland 공순옥(간호대66)	김한중 (의대 56)	박수안 (의대 59)	전희곤 (의대 54)
최윤근 (공대 59)	김희창 (공대 64)	임화식 (치대 59)	박장부 (의대 61)	박명영 (의대 68)	박건이 (공대 60)	박찬평 (약대 57)	Texas
California 강신호 (사대 49)	남장우 (사대 56)	장기열 (치대 55)	Illinois 강화영(문리대48)	안창호 (약대 70)	박성일 (상대 58)	양거영 (의대 49)	신달수 (공대 59)
강정훈 (미대 56)	노명호 (공대 61)	장동석(문리대66)	김사직 (상대 59)	유택영 (공대 57)	박진우 (상대 77)	양금자 (미대 69)	김기준 (공대 60)
강권호 (사대 58)	노재민 (문리대49)	정분용 (상대 54)	김일훈 (의대 51)	이재승 (의대 55)	박태호 (상대 76)	유무영 (공대 66)	민동식 (의대 70)
강희창 (공대 57)	민영기 (치대 61)	정원훈 (상대 38)	김재환 (사대 72)	Massachusetts 정태진 (의대 53)	손갑수 (약대 59)	이희경 (의대 55)	박민자 (사대 58)
권영덕 (공대 54)	박인수 (농대 64)	정인환 (법대 54)	김현욱(문리대67)	Michigan 권영조 (의대 55)	송기인 (의대 60)	최영혜(간호대64)	신달수 (공대 59)
권오형 (사대 61)	박종성 (법대 53)	정재훈 (공대 64)	송원희 (미대 60)	이재원 (법대 60)	양문석 (상대 54)	한승진 (의대 70)	이규진 (약대 60)
김기덕(사회과대)	박종수(수의대58)	정 황 (공대 64)	신석균(문리대54)	이재원 (법대 60)	양성택 (상대)	한용진 (미대 55)	조시호(문리대59)
김기태 (의대 52)	박형철 (사대 72)	정원훈 (상대 38)	안은식(문리대55)	이재원 (법대 60)	윤현남 ()	황문하(수의대76)	Virginia
김병호 (상대 57)	부영무 (치대 70)	정원훈 (상대 38)	이소희 (의대 61)	이재원 (법대 60)	이문휘(문리대54)	Ohio	박용걸 (약대 56)
김석홍 (법대 59)	서정하 (공대 55)	정원훈 (상대 38)	이소희 (간호대68)	이재원 (법대 60)	이유찬 (의대 58)	고남규 (의대 61)	김용현(경영대66)
김영덕 (법대 58)	서치원 (공대 69)	정원훈 (상대 38)	이승자 (사대 60)	한인섭 (약대)	이재원 (법대 60)	김윤성 (의대 63)	김윤성 (의대 63)
김영석(문리대54)	신우식 (치대 62)	정원훈 (상대 38)	임이섭 (미대 54)	New York	이재원 (법대 60)	송용덕 (의대 57)	송용재 (의대 63)
김용수(경영대74)	심상은 (상대 54)	정원훈 (상대 38)	정 호 (공대 62)	곽승용 (의대 65)	이재원 (법대 60)	송용재 (의대 63)	최인갑 (공대 57)
김원탁 (공대 65)	양승문 (공대 65)	정원훈 (상대 38)	정병욱 (의대 53)	김병술 (약대 52)	김상만 (법대 52)	Oregon	최동근(문리대50)
	오명주(간호대77)	정원훈 (상대 38)	조 철 (공대 49)	김상만 (법대 52)	김세중 (공대 50)	최근영 (법대 63)	Wisconsin
	오찬수 (약대 57)	정원훈 (상대 38)	천양곡 (의대 63)	김세중 (공대 50)	김승호 (공대 71)	최동근(문리대50)	이영균 (의대 61)
	윤희성 (치대 65)	정원훈 (상대 38)	최희필 (의대 53)	김진승(문리대53)	남상래(간호대66)	Pennsylvania	
	이성웅 (음대 58)	정원훈 (상대 38)	최혜숙 (의대 53)	노용면 (의대 49)	노용면 (의대 49)	김용국 (의대 58)	
	이영수 (상대 60)	정원훈 (상대 38)				김주진 (법대 54)	
	이영일(문리대53)	정원훈 (상대 38)					
	이홍표 (의대 58)	정원훈 (상대 38)					
	임동규 (미대 57)	정원훈 (상대 38)					

기타 후원회비및 기금 동문

관악후원금 *동창회비를 \$75이상 내신 분은 나머지 금액을 관악후원금으로 이전	임준수(의대 57) 400	서상현(의대 65) 125	Michigan 오동환(의대 65) 200	김정순(법대 53) 200	Virginia 강연식(사대 58) 200	전호선(수의대67)120	허창기(약대 67) 200
Alaska 윤제중(농대55)1,000	장준 (인문대85) 200	송원희(미대 60) 200	남상용(공대 52)200	김종율(사대 51) 200	김기봉(공대 63) 200	정광진(농대 76) 120	Philadelphia
Arizona 박양세(약대 48) 200	장진성(약대 65) 200	양홍미(약대 63) 200	유효명(의대 58) 25	김창수(약대 64) 200	박용걸(약대 56) 450	정복근(사대 69) 120	최 환(공대 68) 120
지영환(의대 59) 200	전호선(수의대67)225	오기창(법대 50) 300	차대양(공대 55) 200	박준희(인문대86)200	박윤수(문리대48)200	정지선(상대 58) 300	
California 권대원(경대원59)200	전희택(의대 58) 200	윤효정(사대 87) 25	Minnesota 김태환(의대 58) 200	성기호(약대 57) 200	박준희(문리대48)200	조홍준(상대 65) 120	Texas
권영조(의대 57) 300	정원훈(상대 38) 400	이광선(의대 59) 200	왕규현(의대 56) 200	이규용(의대 37) 200	박명일(농대 68) 25	최준호(치대 58) 120	이윤성(수의대81)200
김정화(간호대69)200	정창희(법대 54) 25	이승자(사대 60) 200	New Jersey 곽선섭(공대 61) 75	이근수(상대 64) 25	백순(법대 58) 200	하상원(대학원90)120	조시호(문리대59)300
김기수(공대 74) 200	조재길(사대 61) 200	이영우(문리대66)200	권문용(미대 61) 200	이준행(공대48)3,000	이규섭(상대 68) 200	Georgia	Virginia
김낙구(상대 67) 25	최용원(공대 57) 200	이용락(공대48)1,000	기도석(공대 67) 200	최규진(약대 54) 200	이내원(사대 58) 200	백낙영(상대 61) 200	박상근(법대 75) 150
김동산(법대 59) 200	현원영(사대 45) 400	이윤보(농대 57) 200	김봉희(공대 69) 200	최수용(상대 55) 200	이연규(미대 60) 25	Illinois	이규섭(상대 68) 200
김동성(음대 64) 200	황만익(사대 59) 400	임근식(문리대55)200	김연석(상대 54) 200	최한용(농대 58) 200	이영목(공대 59) 500	김영호(의대 71) 120	Washington
김병연(공대 68) 2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200	임현제(의대 59) 600	김영일(약대 58) 25	최형무(법대 69) 200	김성열(치대 61) 200	김제환(사대72)2,500	김성열(치대 61) 200
김석부(농대 58) 200	라찬국(의대 58) 200	장기남(문리대62)700	김지익(의대 69) 25	한경수(문리대57)200	Wisconsin	심상구(상대 63) 120	유성열(공대 72) 200
김영석(문리대54)200	Delaware 배성호(의대 65) 200	정현일(농대 62) 25	박정원(미대 66) 200	North Carolina 이석영(사대 56) 60	김영화(문리대65)200	이제희(상대 63) 120	
김은종(상대59)1,000	Florida 전웅삼(공대 46) 200	정병욱(의대 53) 850	박승원(공대 50) 500	Ohio 김윤성(의대 63) 200	이영균(의대 61) 200	이춘우(치대 54) 120	모교발전기금
김재중 (치대62) 200	정구영(의대 50) 200	정승규(공대 60) 200	신정윤(공대 60) 200	최인갑(공대 57) 200	광고비	Maryland	고광선(공대 57) 500
김종표(법대 58) 200	Georgia 김용건(문리대48)200	조대현(공대 57) 200	윤갑섭(공대 53) 200	Oklahoma 김정숙(생활대70)200	California	권철수(의대 68) 120	중신이사회비
김한재(치대 65) 200	김윤자(사대 60) 200	조종행(의대63)1,000	윤현남() 200	이상강(의대 70) 200	강동순(법대 59) 200	이준영(치대 74) 120	조용원(문리대66)1,500
김한재(간호대70)200	문종현() 25	진관보(의대 72) 200	이정림(상대 64) 200	Pennsylvania	김영환(공대 65) 120	한인섭(문리대55)200	
박국종(법대 57) 200	주중평(약대 60) 500	최희수(문리대67)200	이문휘(문리대54)150	김국간(치대 64) 200	김영환(법대 80) 120	New Jersey	특별후원금
박임하(치대 56) 25	허지영(문리대66)500	한제은(의대 59) 500	이전구(농대60)1,000	김주진(법대 54) 200	오영식(법대 72) 120	강충무(사대 60) 120	모교 총장실 10,000
염동혜(농대74)1,000	Hawaii 김창원(공대 49) 200	Indiana	이태형(문리대62)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300	이경림(상대 64) 120	김광호(문리대62)300	임광수 동창회장 3,000
원미량(미대 65) 200	Illinois 강창만(의대 58) 400	김태기(의대 62) 100	이훈영(상대 61) 200	Pennsylvania	이준행(공대48)3,000	김명승(상대 65) 120	시카고 글든클럽
유제환(상대 67) 200	강수상(의대 47) 200	송순영(문리대 52) 30,300	장준영(문리대67)100	김국간(치대 64) 200	최영대(문리대67)120	김영배(공대 78) 120	1,000
유창호(약대 74) 200	구경희(의대59)1,000	Kansas 배규영(사대 68) 200	조정원(수의대58)200	김원철(농대) 200	New York	김용배(문리대77)120	2,000
이병무(치대 70) 200	김길중(의대 59) 200	Massachusetts	최희우(문리대61)200	김원탁(공대 65) 200	강충무(사대 60) 120	김용학(법대 70) 120	평의원 회비
이병준(상대55)1,000	김윤범(의대 54) 200	김제호(상대 56) 200	허선행(의대 58) 200	김재영(농대 62) 120	김광호(문리대62)300	김영배(공대 78) 120	남상용(공대 52) 100
이선희(사대 53) 25	김윤태(의대63)1,000	이회규(공대 69) 200	홍사만(문리대61) 25	김종표(법대 58) 300	김명승(상대 65) 120	김영배(공대 78) 120	윤상래(수의대62)100
이승훈(상대 74) 200	김재환(사대 72) 200	정태진(의대 53) 25	Nevada	김한평(치대 65) 120	이경림(상대 64) 120	김영배(공대 78) 120	이석호(78) 100
이영일(문리대53)200	김정주(문리대60)200	Maryland	김용재(의대 60) 200	박준창(인문대79)120	이명일(약대 72) 120	김영배(공대 78) 120	이장우(문리대72) 100
이태로 (법대 50)200	노영일(의대 62) 200	강길중(약대 69) 200	김택수(의대 57) 200	서동영(사대 60) 120	이준배(사대 60) 120	김영배(공대 78) 120	
이화숙(간호대67)200	문병훈(사대 47) 100	권철수(의대 68) 200	New York	손학식(공대 61) 120	이형교(교대원66)120	김영배(공대 78) 120	
임낙균(약대 64) 300	박영규(농대 57) 200	김종호(약대 68) 200	강충무(사대 60) 200	신대식(상대 60) 120	임봉기() 200	김영배(공대 78) 120	
임동호(약대 55) 200	반용균(의대 53) 200	김창호(법대 56) 25	권영국(상대 60) 200	신영수(상대 70) 120	장준 (인문대85) 120	김영배(공대 78) 120	
임용오(의대57)3,000		석균범(문리대61)200	권영대(공대 69) 200	신혜원(사대 81) 120		김영배(공대 78) 120	
		오인환(문리대63) 200	김명승(상대 65) 200	원영배(미대 74) 120		김영배(공대 78) 120	
		이태형(법대 60) 200	김병숙(보대원64)200	윤홍원(환대원85)120		김영배(공대 78) 120	
		이항열(법대 57) 25	김병술(약대 52) 75	이경희(문리대57)200		김영배(공대 78) 120	
		전경철(공대 55) 200	김승호(공대 71) 200	이근철(상대 56) 200		김영배(공대 78) 120	
			김영배(공대 78) 200	이명일(약대 72) 120		김영배(공대 78) 120	
			김용연(문리대63)200	이준배(사대 60) 120		김영배(공대 78) 120	
			김용학(법대 70) 305	이형교(교대원66)120		김영배(공대 78) 120	
				임봉기() 200		김영배(공대 78) 120	
				장준 (인문대85) 120		김영배(공대 78) 120	

컴퓨터 파일 이상으로 지난 3-4월호에서 동창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 사실이 누락된 일부 동문들께 사과드립니다.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광경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흥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헤드윅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삼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찬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dor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복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 (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 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8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종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268-83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창업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경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교회 / 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vo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키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취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양공

Driveteck,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외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중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테일링/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8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테일링/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영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강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i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외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형(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외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훈(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직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종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무역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 #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8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동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l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웅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당/재정설계

송기회 기술상담
송기회(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on NJ 08003

서비스/장금장식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외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 Ave. 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옥(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중(의대 8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일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192호 2010년 4월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8)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215) 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HOU

휴스턴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 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업소등록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등록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8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 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 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 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광고 게재 협조요청

모교 서울대에서 발행중인 ‘大學新聞’ 이 미주 동문 여러 분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고 게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고 단가는 4단 1면 400만원, 5단(17cm x 37cm) 기준 흑백이 50만원, 컬러 광고인 경우 75만원이다. 또 9단 세로 컬러 광고는 100만원이다.

광고 관련 연락처

전화 02-880-5215(담당자 박이진)
팩스 02-872-9511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환(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정광(LA) 임승배(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김지영(사대 69입) 213-272-9488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뉴욕	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욱(가정 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차기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490-5335 robertwc@juno.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윤희경(문리 62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정도(한글 약 5천자, 1천 단어)입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등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a.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a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 운용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가 완전히 구축되는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차차 개선될 것이므로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aa.org/>

함께하는 서울대의 도약
VISION2025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배님, 우리 후배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이제 그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 ~ 2010년 7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위 기간동안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한 전 동문의 '약정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기부방법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발전기금미주재단은 뉴욕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501(c)(3)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 의무자께서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계좌정보

Address : SNU Foundation Inc.,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USA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ennethleecpa.com
담당자 : 이경림 (Kenneth K. Lee, CPA)

Bank Name : Shinhan Bank America, Little Neck Branch
Address : 252-20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Account No. : 115-6-000805 (Routing No. : 026011963)

※ 미주재단으로 주식을 기부하셔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중 주식 계좌 개설 예정)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제19차 시카고 평의원 회의’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날짜 : 2010년 6월11~13일 3일간
장소 :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 Lincolnshire
IL 60069 Tel (847)634-0100

6월11일 오후 3:00~5:00 등록 및 접수
오후 6:00~10:00 초빙강사 강연 및 토론회

6월12일 오전 9:00~오후 5:00 19차 평의원 회의
오후 6:30~7:30 Reception, Cocktail
오후 8:00~10:00 총장·동창회장 환영디너

6월13일 오전 8:00~12:00 Check out
오후 11:00~5:00 환영골프대회
오후 6:00~10:00 골프대회 시상식 및 디너

미주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송순영)는 연중사업계획의 하나로 전통문이 참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상의 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10월8일출발

인사이드를
\$1730
항공료별도



여행일정 :
10/08 미국-바르셀로나(항공편)
10/09 바르셀로나 시내관광
10/10 오전 시내관광후 배에 승선
10/11 몬테카탈로
10/12 플로렌스/피사
10/13 로마/바티칸
10/14 나폴리
10/15 At sea(선내)
10/16 팔마섬
10/17 바르셀로나 - 미국

팩키지에는 항공료를 제외한 다음모든사항이 포함됨

1. Barcelona 2 days private tour
2. Monaco/Nice private tour
3. Florence/Pisa private tour
4. Rome and Vatican private tour
5. Naples/Pompei private tour
6. Plama private tour

All tips for guide/driver included

Room Type 에 따른 계약된 그룹요금

1. Balcony room (\$2290 + Air)
2. Oceanview room(\$1890 + Air)
3. Partial Oceanview(\$1820 + Air)
4. Inside room(9층) (\$1750 + Air)
5. Inside room(8층) (\$1730 + Air)

예약마감 : 6월 30일

예약및 문의 800-222-3586
sharptour@hotmail.com

샤프여행사

Sharp Travel(본점) www.sharptours.com
3520 Milwaukee Ave. Suite 1, Northbrook, IL 60062
TEL. 847.759.8813 FAX. 847.759.8825 Toll Free. 1.800.222.3586

Sharp Travel(지점)
1226 N Roselle Rd. Unit B, Schaumburg, IL 60195
TEL. 847.285.3219 FAX. 847.285.3493 Toll Free. 1.888.To.Sharp